

“연구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비 등 학교측의 지원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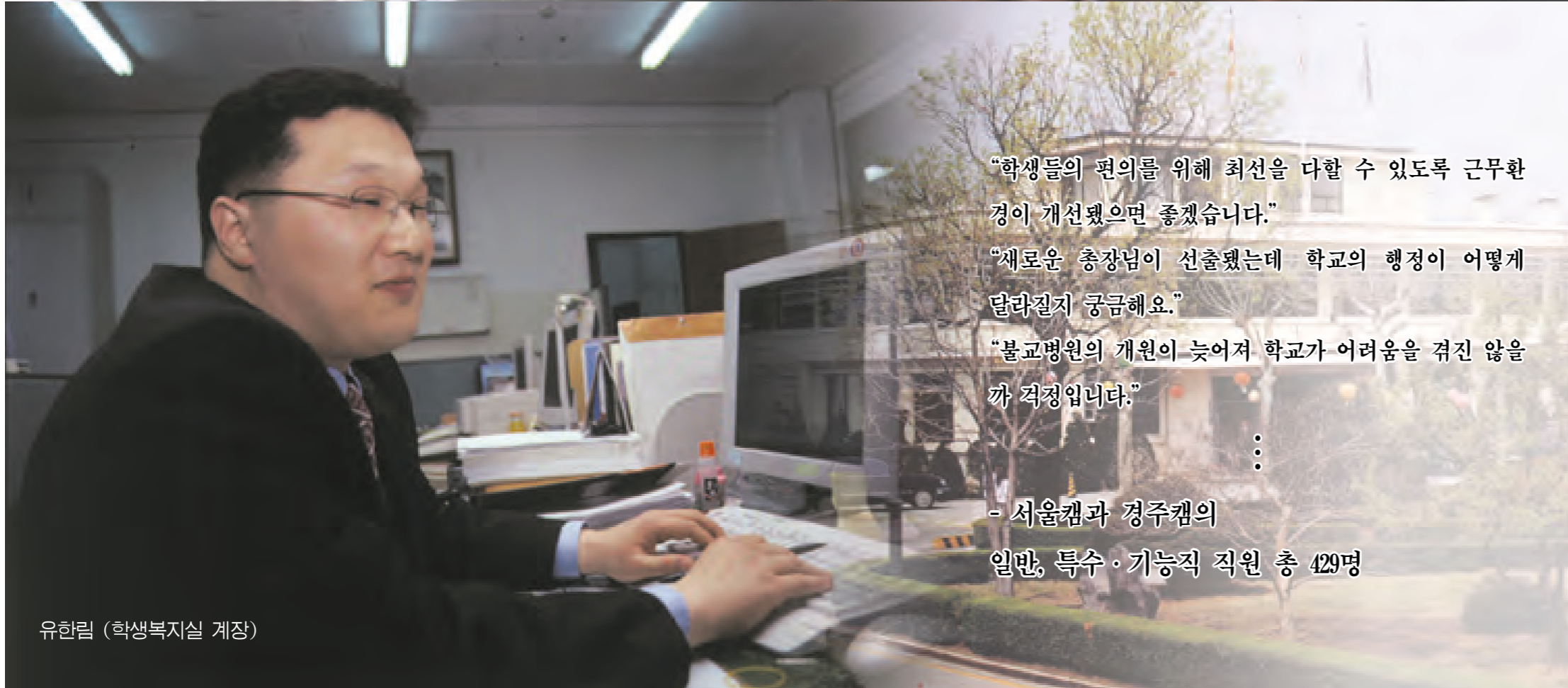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믿을만한 정보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연구에 쫓기다보면 모르고 지나치는 일들이 많거든요.”

“연수의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 서울캠 교수 353명, 경주캠 교수 301명

장하용 (신문방송학과 교수)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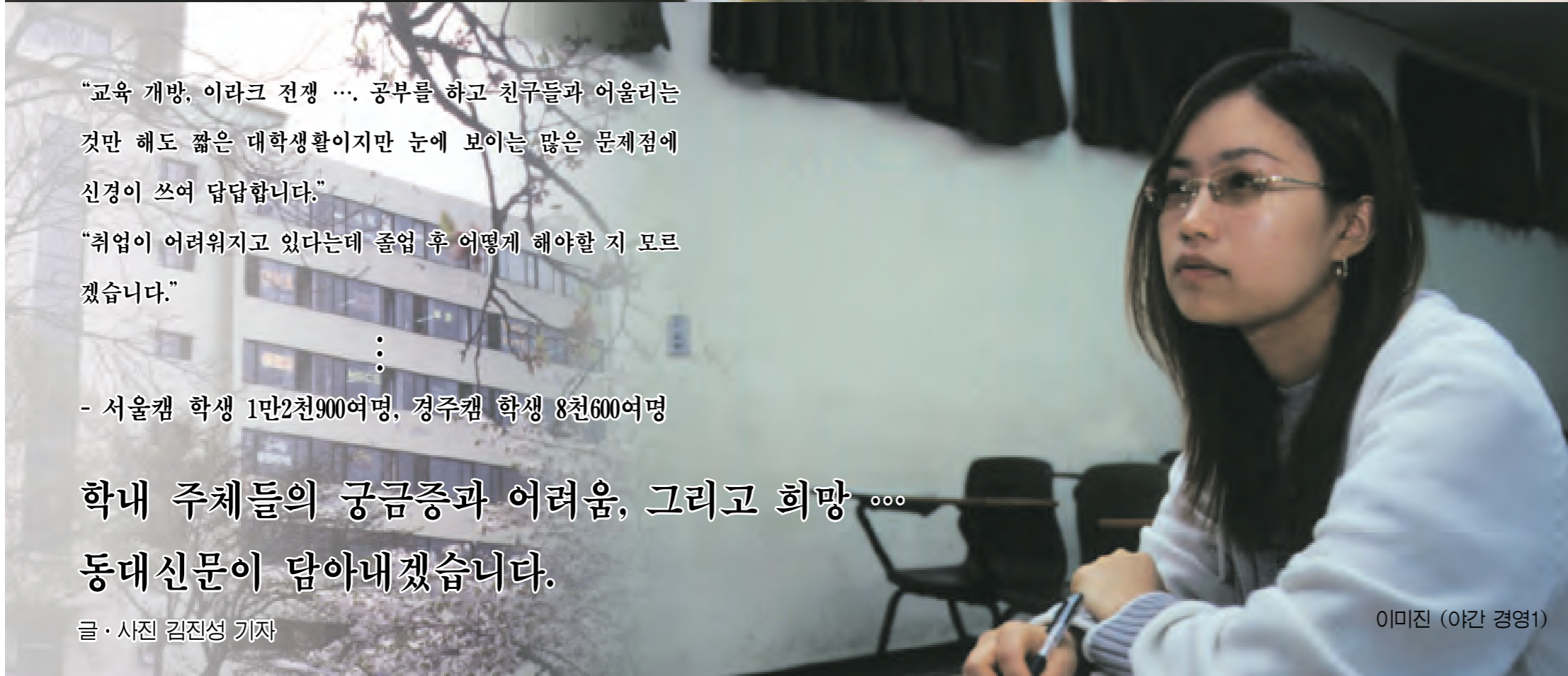
“새로운 총장님이 선출됐는데 학교의 행정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해요.”

“불교병원의 개원이 늦어져 학교가 어려움을 겪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

- 서울캠과 경주캠의 일반, 특수·기능직 직원 총 429명

유한림 (학생복지실 계장)



“교육 개방, 이라크 전쟁 ...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만 해도 짧은 대학생들이지만 눈에 보이는 많은 문제점에 신경이 쓰여 답답합니다.”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졸업 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

- 서울캠 학생 1만2천900여명, 경주캠 학생 8천600여명

학내 주체들의 궁금증과 어려움, 그리고 희망 ... 동대신문이 담아내겠습니다.

글·사진 김진성 기자

이미진 (아간 경영1)

창간 53주년 기념사



홍기삼 총장(국문학·본사 발행인)

동대신문이 창간 53주년을 맞게 된 것에 우선 축하와 기쁨의 인사부터 전합니다.

엄혹하기 그지없었던 70년대 말, 본인은 동대신문의 주간직을 수행하면서 학생 기자들과 회로애락을 함께 했던 아름다운 기억을 지금까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소회와 함께 70년대 이후 계속된 대학 사회의 고통스런 충격과 변화를 이겨내고 세기를 바꾼 이 시점까지 많은 발전을 거듭해온 동대신문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갖 시련과 도전을 이겨내고 이 지점에 이른 동대신문과 대학 사회에 대해 긍지를 갖는 것이 대학인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학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반성의 과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실험정신 담은 미래지향적 신문 되길

동대신문을 비롯한 대학 신문들은 정치 사회적 민주화 쟁취를 위해 싸워왔고 경직된 사회 문화적 관습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해온 자랑스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투쟁의 당위를 이루는 전제는 민주화되지 않은 사회에서 대학이나 학문이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극단적으로 대학이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비판적 저항 정신에 근거를 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신념이 대학을 지배해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대학의 희생은 너무도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민중 신화로 표상 되는 정치적 신념이 학문과 사상의 다양성에 손상을 입힌 것이 그 하나의 사례입니다.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진 민중 신화는 대학 신문과 대학의 문화를 획일주의적인 것으로 만들어 심지어 이제 어느 대학에서 제작된 신문이든 하나만 읽으면 전국 모든 대학의 신문을 읽는 것과 동일하다는 냉소적 비판을 받아오게 된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실험 정신과 미래지향적 다양성은 어디론가 소멸하고 오직 소수의 사회문화적 관심사에 대학 신문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집 기사, 기고 논설, 사실과 학생 기자의 각종 취재 기사 등은 21세기에 들어선 지금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학생운동에 바탕한 진보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연구와 교육이 대학의 본질이라는 당연하고도 소박한 진실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역시 그런 정황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우리 사회는 정치 문화와 대학의 민주화를 이루게 되었고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은 젊은이들의 활기로 충만한 역동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타인의 수업과 연구와 사색을 방해해선 안 되는 조용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나와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문화적 다양성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대학 문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학은 무한대의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가 허용된 곳입니다. 더 이상 획일주의적인 신념이 배타적 문화, 경직된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동대신문은 크게 눈을 뜨고 미래를 향하기 바랍니다.

동대신문의 눈부신 발전과 변신을 기대합니다.

지면안내

새대기가 보는 우리사회 4면

여중생 장갑차 압사 사건 등으로 지난해는 대학생들의 정치사회적식이 폭발했던 때였다. 이에 전국 30여개 대학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새내기 사회정치 의식 설문조사'를 실시, 결과를 분석했다. 또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본교 새대기들이 우리사회와 대학에 대한 이야기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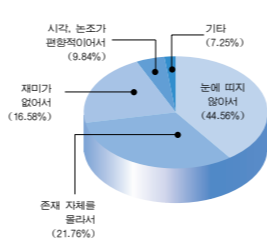
동대신문을 말한다 6면



본사는 창간 53주년을 맞아 '동대신문 평가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학내 주체들과 본사 기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동대신문을 평가하고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창간 53주년 기념 설문조사 7면

동대신문 창간 53주년을 맞아 동대신문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 만족도, 개선방안 등을 알아보고자 본교 통계연구소에 의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저자와 독자의 만남 10면



'악역을 맡은자의 슬픔'의 저자 홍세화씨와 독자 김민수(사회4)군의 만남을 중계, △지식인의 역할 △공공화주의 △조선일보와 언론개혁 △진보진영의 확대 등에 대한 그들의 대화를 들어본다.

제5회 서울여성영화제 개막 12면



제5회 '서울여성영화제'가 지난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등 3개관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새로운 물결' '딤포커스' 등 총 120여편의 영화를 7개 부문으로 나누어 상영한다. 여성성에 대한 탐구와 고민이 묻어나는 세계 여성성감 감독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영어패스제 시험 신청 오는 30일까지 신청순 1천명

언어연구교육원(원장=봉일원·독일학)이 영어패스제 시험 신청을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2001학년도 이후 입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시험은 패스제 적용 시험 △TOEIC △TOEFL △TEPS 중 TOEIC으로 치러지며, 신청순 1천명까지 응시가능하다.

시험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영어패스제는 학생들이 영어능력을 일정수준이상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1학년도(불교대 2002학년도) 처음 도입됐다.

축구부, 험멜코리아배 출전 내일 고려대와 첫 경기

'2003 험멜코리아배 전국춘계대학축구연맹전'에 출전한 본교 축구부(감독=김승기)가 내일(15일) 오후 1시 보조운동장에서 고려대학교와 첫 경기를 갖는다.

또한 조선대와 18일 오후 1시 호남대구장에서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한편,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전'에 출전했던 야구부(감독=한대화)는 지난 6일 동의대의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8대 3으로 이겨 4승3패의 전적을 기록했지만 8강 진출에는 실패했다.

연등 점등식 오는 29일 부처님 오신 날까지 점등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는 29일 오후 6시 30분 불상 앞에서 연등 점등식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이사장·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가 참석하며 △삼귀의 △총장축사 △이사장 법어 △점등 스위치 △정근·탑돌이 △사홍서원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참가 가능하다.

이날 점등되는 연등은 부처님 오신날인 다음달 8일까지 밝힐 예정이다.

학내 다양한 반전활동 진행

반전특강·영화 상영 등... "지속적 활동 펼칠 것"

지난주 바그다드의 함락으로 전쟁은 사실상 끝났지만 학내에서 반전을 외치는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았다.

총학생회(회장=유영빈·경영4)는 지난주 반전영화 상영, 반전 특강, 반전 티셔츠를 판매하는 등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 10일 진행된 강정구(사회학) 교수의 반전특강은 학생과 교수가 함께 마련한 자리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전쟁 반대·파병반대를 주장하며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 김태준(국어국문) 교수를 비롯한 교수·대학원생 16명은 지난 10일 이라크 전쟁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포럼·학술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다음달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해 전쟁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 밖에 박순성(북한학) 교수가 지난 2일 반전수업을 진행하고 사과대 소모임 '동경' 등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총학생회는 소모임· 동아리 등과 학생들을 만나 교수, 직원 등 학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반전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영건(사회4) 총학생회 정치·사무국장은 "학생들이 반전에 대해 의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과대 학생회(회장=오원기·정외4)는 이번 주를 반전주간으로 정하고 통일광장에서의 사건전을 시작으로 △화요일=반전강연

△수요일=반전 찾집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일 고려대를 비롯한 8개 대학이 '이라크 침략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저지, 한반도 전쟁위협 반대를 위한' 동맹휴업을 성사시키는 등 대학가의 반전 움직임 또한 활발히 진행됐다.

지난 11일 종로에서 열린 '제2차 대학생 행동의 날'에는 1천 여명의 학생이 참여해 △미국의 침략전쟁 중단 △17일로 예정된 파병철회 촉구 등을 요구했다.

또한 경희대가 대학생 행동의 날에 참가하는 것으로 수업을 대체하고, 경상대가 16일경 반전 야외수업을 계획하는 등 수업을 거부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닌 '현장수업'으로 대체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새로운 출발... 제16기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 서총련) 출범식이 지난 11일 숭실대학교에서 진행됐다. 한총련 산하 지역 총련 중 첫 번째로 진행된 이번 출범식에서 참가 학생들은 서총련의 '시작'을 즐기며 이라크 전쟁, 교육개방 등 사회문제에 대한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본교 학술교류 현황 분석

학술회의, 일부 학문에 치중

다양한 학문교류·교수들 자발적 참여 필요

해외대학과의 학술교류 협정은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양 대학의 증진을 꾀할 수 있어 많은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이다. 이에 본지는 두 차례에 걸쳐 본교의 학술교류 현황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 ① 학생교류
- ② 연구·학술회의 교류

현재 본교는 50개의 해외자매 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해 해외 자매대학 보유 순위 10위권 안팎이다. 그러나 지난해 학술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학술회의·강연이 3개국과 4차례 진행된 것에 불과해 학술회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술협정이 체결된 대학은 대부분 불교·인문분야가 특화된 대학에 집중돼 있어 다양

한 학문의 교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진행된 학술회의가 '한·일 공동 인도학 불교학 학술대회'와 '서양에서 많은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때문에 타 계열 교수들의 자매대학과의 학술교류는 전문한 상황이며 공동 연구·학술회의를 많이 진행하는 이·공계 교수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해외대학과 교류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해 유은우(철학) 교수는 "자매대학과 학술교류를 한다면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도 학술회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로 분석된다. 현재 진행된 4개의 학술교류는 교수들의 요구에 의해 진행되기 보다 학교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한 후 교수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교류실의 한 관계자는 "자매대학과 학술회의를 통해 발표된 논문이 교수연구업적 평가 중 국제학술대회 논문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도 참여가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본교의 경우 3개국 이상의 학교가 참가하는 경우 국제학술대회로 인정하지만 자매대학과의 학술교류는 3개국이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학술회의가 일년에 1~2차례 만나 형식적으로 논문발표를 하는데 그쳐 개최비용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따라서 앞으로 학술회의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이 교류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학술회의에 참여해 학술회의가 학생교류 등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교수회, 학교측에 개선안 요구

연구업적평가 재검토·책임시간 감축 등

교수회(회장=박종훈·윤리문화학)가 지난 9일 대의원의회를 열어 교원업적평가 재검토, 책임시간 감축 등의 개선안을 학교측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개선안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처와 교수회가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업적평가의 △학술지 게재 연구비 인상 △승진·재임용을 위한 국제·국내 학술지 게재 의무사항 삭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

고 책임시간을 현행 9시간에서 6시간으로 감축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연구년 교수 확대 △임금인상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선안은 교수회 특별위원회와 메일을 통해 수렴한 교수들의 의견 중 대의원의회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

교수회는 내일(15일) 학교측에 정식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미국 3개대 교환학생 접수 선발인원 각각 5명

2003학년도 △미시간 주립대학 △샘프슨스턴 주립대학 △노던 주립대학 교환학생 접수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제교류실에서 진행된다.

선발인원은 각각 5명씩이며 지원은 학부과정 3학년 1학기 재학생으로 TOEFL 550점(CBT 213점) 이상, 누계평점평균 3.0이상 가능하다. 단,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는 지원할 수 없다.

신청서류는 △해의 자매대학 교환학생 지원신청서 △재학·성적 증명서 △TOEFL 성적표를 국제교류실에 제출하면 된다.

전형은 학부성과적과 면접이 각각 50%씩 반영되며 면접은 다음달 16일 진행된다.

발표는 다음달 20일 개별통보 될 예정이다.

알림

중간고사 관계로 2주동안 휴간합니다. 다음 신문은 5월 5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보리수

'4.19' 단상

다시 4.19 혁명기념일이다.

매년 4월이 되면 목멱골엔 유난히도 진분은 진달래가 꽃봉오리를 활짝 터뜨린다.

불의와 독재권력에 맞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동국의 넋들이 한 송이 꽃이 되어 당시를 말해주는 듯 싶다.

이승만 정권의 종말을 가져다 준 헌정 사상 최대의 유혈테도,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향한 헌법의 최선봉에 바로 동국인들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후학

들에게 크나큰 자긍심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매년 이맘때면 학교차원에서 4월 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4.19 국립묘지 참배와 북한산 등반대회를 여는 것도 시대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더 나은 미래사회를 일구기 위한 동국인들의 다짐일 게다.

아울러 캠퍼스 안에 세워진 동우탑의 주인공 고(故) 노회두 형을 비롯한 당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더욱 중요한 일은 그들 앞에 '역사적 진실'을 남기는

일일 터이다.

그런데도 매년 이맘때면 못내 아쉬운 평가가 4.19 혁명정신과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이 뭔가 잘못된 역사를 배우고 있는 듯 싶어 개운치가 않다.

보훈처가 지정한 국가유공자 중 다수의 인사가 혁명당시 여타학교의 학도호국단 간부출신들로 박정희 정권 때 친유신 세력으로 분류된 인물들이라는 점과, 이들이 혁명에 앞장서기보다 학내 프락치로서 민주화 운동의 저지역할을 담당했다는 저간의 고백들을 그저 항변

으로만 치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4월을 맞아 진지한 자기성찰의 기회를 가져주기를 촉구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지면을 빌어 당시를 회고하고 '역사적 진실'을 곱씹어 보자고 간곡히 제안하고픈 것도 그 때문이다.

그것은 동국인과 '동대신문'의 역할일 수도 있다.

하춘생

주간불교신문사 편집부장

수습기자 모집광고

공짜 '신용' 카드를 드립니다

성공을 위한 여러가지 조건 중에서 알맹이만 골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와 신뢰를 높여줄 것입니다.

시작이 다르면 끝도 다릅니다. 새로운 출발, 동대신문사에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또다른 '신용'이 될 동대신문사가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00명
- ▲응시자격 : 1학년 남·여 재학생
- ▲제출서류 :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 사진 1장 (지원서는 본사에서 배부중)
- ▲원서접수 : 4월 16일(수) 오후 6시까지
- ▲전형방법 : 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② 면접 및 간단한 시험
-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해외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됨



동대신문사

등록금 관련 논의기구 마련해야

총학 “일방적 인상 받아들일 수 없어” ... 납부거부 운동 진행

지난 3일 학교측이 등록금 인상율을 10%에서 8%로 하향 조정하며 “더 이상의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학생회가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요구하며 납부거부 운동을 펼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양측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2차례의 총장 면담과 그 밖의 비공식적인 논의자리를 갖는 데, 예년에 비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학생회가 요구하고 있는 등록금 재책정·등록금 책정 협의회(이하 등록협)에 대해 학교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등록금 협의 평가=총학생회

는 지난 2월부터 학교측과 만나 등록금 재책정·등록협 구성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3월 말 총학생회가 구성되고, 가예산이 4월 초 확정됨에 따라 등록금 인상요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원칙적인 입장을 전달하는데 그쳤다.

또한 지난 겨울방학 서울·경주·대학원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구성된 ‘등록협’의 구성을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초기 몇 차례는 등록금 재책정·등록금 책정 협의회(이하 등록협)에 대해 학교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등록금 협의 평가=총학생회

그러나 현재 학생대표자 8명이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납부거부 운동을 진행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학교측의 제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등록금 책정협의회=지난 11일 집계된 결과 약 99%의 학생이 등록을 마감함에 따라 사실상 등록금 재책정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등록협 구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오신임(국고4) 학자부위원장은 “반드시 학생들과 논의를 통해 등록금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명문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협은 신입생장이 취임 초기부터 “학생들과 카운트 파트너

로 등록금 책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들과의 논의는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의의 가능성이 배제할 수는 없다.

그동안 등록금 투쟁은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로 자리잡을 만큼 고질적인 문제가 됐다. 학교측과 학생측 모두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상시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새터감사 ‘오리무중’

자체감사 실시 ... 대의원 책임감 부족으로 연기

새터가 끝난지 1개월이 지났지만 각 단과대의 새터 부정기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체로 지적된다. 이는 지난해 감사가 3월 중순에 마무리 된 것과 비교하면 1달 여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총대의원회(의장=임수옥·화공4, 이하 총대)는 그동안 중앙에서 진행했던 새터감사를 올해부터 각 단과대 감사특별위원회가 시행하는 자체감사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임수옥 총대의장은 “제출된 자료 뿐만 아니라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점검하고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교대를 제외한 모든 단과대가 해오름식, 대의원의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연기하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감사가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이유는 시행세칙에 대한 대의원들의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 시행세칙은 부정기 감사의 경우 ‘사업이 끝난 이후 30일까지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단과대 대의원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운(독문4) 문과대 대의원은 “감사 시행일이 정해져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게다가 제출자료가 감사가

진행되기 10일 전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일 전, 또는 감사가 진행되는 날까지 제출하도록 한 것은 대의원들의 사전교양 부족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총대의원장은 “사전교양이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는 대의원들의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대의원들의 책임성 부족을 드러냈다.

또한 감사일정에 대한 강제성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중앙감사의 경우 일정이 각 단위에 일괄 적용돼 자료제출 시한을 넘길 경우 ‘주의’와 같은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자체감사는 해당 학생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김미은(서양3) 예술대 대의원은 “단과대에서 일정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해 늦어졌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세칙은 ‘불성실’, ‘비효율’ 등 추상적인 문구가 있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자체감사의 경우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의원들의 사전교육과 자체감사 일정의 명확한 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부 dmz@dongguk.edu

회전무대

신종 바이러스

“...요즘 해내 인터넷 속도가 초저속(?)으로 느려졌다는데. 알아보니 해내 10여대의 컴퓨터가 웹바이러스에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 사용자가 이를 치료하지 않아 인터넷 속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바이러스가 해내 다른 컴퓨터에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사용자는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바이러스를 방관하는 당신은 혹시 동악 바이러스(?)”

비밀회의

“...사과대 학생대표자회의가 다른 단과대에 비해 조졸(?)하게 진행됐는데. 알아보니 장소가 회의시작 30여분 전 갑자기 변경됐을 뿐 아니라 공간이 협소해 일반 학생들이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번 회의가 1년의 사업계획과 등록금투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던 만큼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했어야 하지 않았는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우리’ 학생회, 그러나 내 자리는 없다(?)”

방문설치

“...얼마전 몇몇 연구실과 실습실 등에 신규 IP(Internet Protocol)가 할당된 후 정보관리실 직원들은 부업무(?)에 한창이라는데. 알아보니 사용자가 어렵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네트워크설정을 정보관리실에 요청해 직원들이 직접 설정하러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홈페이지 또는 공문을 통해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물고기를 잡아 주기보다 잡는 법을 알려줘야 혼자서도 잘 해요(?)”

숨은 언론 찾기

“...중앙도서관에 가면 해내 언론매체와 학생들간의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는데. 알아보니 신문, 교지 등이 출입문 옆 바닥에 놓여있어 눈에 잘 띄지 않고, 바닥에 흐트러져 있기 때문이라고. 배부대 등을 설치해 이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조금씩 벌어져가는 언론과 학생, 이런 배부대로 치료하자(?)”

도서관 이용 70.3% 만족 중도 자체설문조사 실시

중앙도서관(관장=최인숙·철학)이 지난달 20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신속중앙도서관 개관’에 따른 서비스 질 제고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약 70.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도서관 이용자 262명을 대상으로 △자료실 운영 △배치 △시설 △장서로 나눠 진행했다.

우선 개가식으로 운영되는 주제별 자료실의 운영방식에 대해 약 88% 이상이 만족한다고 대답했으며, 자료실, 휴게실 등의 배치와 시설부분에 대해서도 74%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보유 장서에 대해서는 61%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해 장서의 부족함을 나타냈다.

이밖에 기타 의견으로는 ‘열람실 확충’, ‘편의시설 설치’, ‘소음해결’ 등이 있었다.

순수 취업률 71%
총 3천 92명 중 1천 584명

본교 2002학년도 순수취업률이 71%로 나타났다.

순수취업률은 총 졸업자 중 △군입대 △대학원 진학 △확인 미상자를 제외한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는 것으로 올해 취업한 졸업생은 1천584명이다.

특히 올해는 순수취업률을 계산할 때 취업확인 미상자를 대상으로 제외시켜 지난해 65.5%보다 약 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수입·건설 가계정 등 재책정 요구

예산공개 후 첫 논의 ... 학교 “재정 어려워 인하 불가능”

학교측과 학생회가 지난 9일 예산안 공개 후 첫 면담자리를 가졌으나 등록금 재책정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

이 날 오신임(수교4) 학자부위원장은 “등록금이 8%로 하향조정됐지만 여전히 학생들과 논의없이 진행됐다”며 △등록금수입 축소책정 △건설가계정 과대 책정 △적립금 수입 감소 △입학금 인상 등에 대해 재책정을 요구했다.

학생회측은 “등록금수입이 약 53억원 축소책정됐으며 건설가계정, 예비비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사업에 과다한 예산이 책정됐다”며 등록금 인상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올해 학교의 재정이 어려운 만큼 더 이상의 인하는 불가능하다”며 다음해부터 등록금 책정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중 예산팀장은 “수입은 최소



학교측과 학생대표자들이 만나 등록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로 책정하고 지출을 최대한 편성하는 것이 예산책정의 기본”이라며 “경기가 불투명하고 대학원과 경주 캠퍼스의 신입생 등록금이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등록금 수입을 3~4% 축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설가계정은 지하주차장 건설이나 기숙사 건립 등 추가로 예산이 집행될 경우를 대비해 50여억원 높게 책정한 것이며, 예비비의 경우 신입 총장 취임 이후 각

부서별로 제안한 발전계획안 검토 후 추가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해설보도)

한편,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대표자들은 지난 9일부터 ‘합리적인 등록금 재책정을 위한 납부거부 농성단’을 구성해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며 총장과의 2차 면담을 신청한 상태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사회과학부 축제 내일부터 3일간

사회과학대 학생회(회장=오원기·정의4)가 주최하는 사회과학부 축제가 내일(15일)부터 3일간 통일광장에서 열린다.

올해 처음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단체 졸업기 △불꽃놀이 △농구 △줄다리기 △OX퀴즈 △요리대회 △

주점운영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김중연(사회) 사과대 부학생회장은 “새내기 교양학교를 대신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학부제로 인해 소홀해질 수 있는 선·후배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봄학기 2차특강 신청
기분영어회화 등 개설

언어연구교육원이 봄학기 특강 2차 수강생 신청을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받는다.

개설과목은 △기본 영어회화 △Me & My life 1(초급) △Me & My life 2(중급) △Writing & Speaking △Interview English △CBT TOEFL 이다.

총학생회 해오름식 오는 17일

출범주간 맞아 한·일 축구경기 야외상영·마술쇼 등

제35대 총학생회(회장=유영민·경영4) 해오름식이 오는 17일 오후 6시 만해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해오름식은 △불꽃놀이 △10대과제 선정 △대표자 인사 △명물 새내기 선발전 △올림픽 등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총학생회 출범주간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2일 간 상록원과 중

도 옆 벤치에서 △수배자 노래소도 임 ‘풀어줘’ △클래식 △마술 등의 상설공연과 반전내용을 담은 티셔츠를 판매하고, 16일 오후 7시 불상 앞에서 ‘한·일 축구 친선경기’를 상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주 진행하기로 한 새내기 농구대회는 준비미흡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직원노조, 임금 9%인상 요구

단협 함께 진행 ... “복지부분 개선에 힘쓸 것”

직원노조(위원장=강형석)가 2003년 임금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9%인상해줄 것을 학교측에 요구했다.

또한 2년에 한 번 진행되는 단체협상안으로 △사학연금제 학교측

일부 부담 △직장인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 기회 제공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규환 사무국장은 “인상율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그동안 소홀했던 복지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43주년 4.19혁명 기념 추모식 및 제34회 동국인 등산대회 개최

4. 19혁명 43주년을 맞이하여 선열들의 참 뜻을 되새기고, 동국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4. 19기념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모든 동국가족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행사일시 : 2003. 4. 18(금), 09:00~16:00	나. 동국인 등산대회 : 점심 시간 및 폐회식장소 도착 시간을 엄수하고, 중식 시 지나친 과음 절대 삼가	나. 학과 단체팀 : 금상 1팀(W1,000,000), 은상 2팀(각 W500,000), 동상 3팀(각 W300,000)	
2. 행사장소 : 국립 4.19묘지(추모식) 및 북한산(등산대회) (집결장소 및 시간 : 국립 4.19묘지 내(內) 광장, 09:00까지)	다. 등산대회 중식 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모든 쓰레기는 하산 시 반드시 가지고 내려 올 것	다. 동아리 단체팀 : 2팀(각 W300,000) 라. 교직원 단체팀 : 금상 1팀(W500,000), 은상 2팀(각 W300,000)	
3. 행사내용 : 제43주년 4.19혁명 기념 추모식 및 제34회 동국인 등산대회	6. 등산경로 : 4.19기념탑(개회식) → 백련사매표소 → 대동문 → 보국문 → 중성문 → 대서문 → 북한산성매표소 → 한산성매표소 앞 주차장(시상식 및 폐회식)	11. 접수기간 : 2003. 4. 1(화) ~ 4. 16(수), 09:00 ~ 17:00	
4. 행사일정 및 준수사항	7. 교통편 : 가. 시내버스 : 6번, 6-1번, 8번, 8-1번, 23번, 28번, 333번(4.19 국립묘지 입구에서 하차, 도보 10분) 27번, 127번(우회람) : 4.19 국립묘지 앞에서 하차(도보 3분) 나. 지하철 : 4호선 수유역(마루버스 및 학교(셔틀)버스 이용) 다. 셔틀버스 3대 운행 : 4호선 수유역(5번출구 ↔ 국립 4.19묘지 입구 (운행시간 : 08:00 ~ 09:50까지))	12. 접수처 가. 학과단체팀 : 각 단과대학 교학과 나. 4인 1조팀, 동아리단체팀 : 학생처 학생복지실(본관 3층)	
시간	행사내용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3. 유의사항 가. 단체팀의 경우, 접수기간 내 접수한 팀에 한하여 시상 나. 학과 단체팀 및 동아리 단체팀은 반드시 참가자 명단 제출 (양식은 각 단과대학 교학과 또는 학생복지실에서 배부) 다. 학과 및 동아리 단체팀은 행사당일 행렬의 선두와 후미에 세울 깃발 2개 준비 라. 우천시에도 대회는 진행됨.(우산이나 우의는 개별 준비) 마. 도시락은 각자 준비(쓰레기 봉투도 필히 준비)
08:30	등산대회 단체팀 확인	안내책자 수령 및 ‘산불조심리본’(행사 분야에서 제공) 착용	※ 이번 제34회 동국인 등산대회는 참가자 기념품을 배포하지 않으니 이점 널리 양해 바라오며, 4.19 기념행사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복지실(☎2260-30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00	4.19혁명 43주년 기념 추모식 (현화, 분향, 무념)	참가자 전원 4.19 기념탑 앞으로 이동 후 합동 분향	
10:20	제34회 동국인 등산대회 개회식		
10:30	등산대회 출발(북한산)		
12:20	중식시작(대동문)	중식 시간(12:20~13:30) 엄수 및 과도한 음주 삼가(시상 기준)	
13:30	전원 출발(하산)	쓰레기 투기 절대 금지 (하산 시 반드시 가지고 내려 올 것)	
15:20	폐회식 장소 도착 (북한산성 매표소 앞 주차장)	폐회식 장소 도착 시간 엄수 (시상 기준)	
15:30	시상식 및 폐회식		
16:00	해산 및 정리	귀가 시간에 맞춰 대중 교통 증차 예정	
5. 민주주의를 위해 신화하신 순국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4.19정신의 참 뜻을 기리기 위해 동국인 모두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가. 4.19기념 추모식 : 행사참가자 전원 참석 → 행사 전 4.19 기념탑 앞으로 함께 이동하여 합동 분향			

동약론

편의 vs 인권



“교수님, 보고서 늦게 제출해서 죄송합니다.”
“자네는 매년 이렇게 늦게 제출하나?
교육자 집안에서 자란 학생답게
학점관리 제대로 하게.”

보고서를 제출하던 그군은 뜻밖의
말에 당황한다. 자신의 부모님이
교사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교수님은 이미 알고 있던 것이다.
교수는 그군의 부모님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

현재 본교에는 ‘드림스’라는
전산처리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이는
학사 또는 행정자료를 전산으로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교수들과 몇몇 부서의 직원들은 이를
이용해 모든 학생들의 성적, 주소,
부모님직업 등 신상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공개를 원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공개되는
것이다.

이런 전산처리시스템이 비단
본교에서만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3월부터 교육부가 논란 속에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또한 드림스와 같은
전산처리시스템의 일종이다.
교육부에서는 “효율적인 학사행정에
큰 도움이 된다”며 밀어붙이고 있지만
전교조 등에서는 인권 침해와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산에 관한 정보 또는 사회시설
수용경험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본교에서는 드림스가
악용된 적이 없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악용가능성을 따지기
이전에 개인정보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된다는 것은 분명히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드림스로 조회 가능한 정보와
대상을 제한하고 실수나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미련해야 할 것이다.

드림스는 학사·행정업무처리에 많은
편의를 준다. 하지만 누군가 이를 통해
학생들의 중요한 신상정보를 ‘벗길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인지해야 하지
않을까.

최성민
기자

신입생 사회정치의식 설문조사

새내기 최대 고민은 ‘취업’

동계올림픽 오노사건, 월드컵, 여중
생 장갑차 압사사건, 대통령선거 등으
로 지난해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등학
생들의 정치·사회이식이 폭발했던 때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이버시위
와 촛불시위 또한 청소년들의 집단적인
사회참여의식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에 본사를 비롯한 전국대학신문기
지연합(의장=정우윤·부신대신문사) 편
집국장이 지난 달 14일부터 5일간 전
국 38개 대학 신입생 1천 70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 ‘전국대학 신입생 정치·
사회이식’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편집자

이제 막 대학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새
내기들의 고민은 과연 무엇일까.

새내기 역시 취업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을 묻는 질문
에 진학 및 취업문제가 24.3%로 1위를 차
지한 것이다. 또한 장래에 할 일을 결정했
다고 대답한 학생이 60%를 차지해 관심을
넘어 계획까지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풍요보다
는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겠다(49.8%)
고 대답한 학생들이 많아 단순히 보수가
좋은 직장을 얻으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새내기들의 외교안보의식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반미의식이 뚜렷하다는 점이
다. 지난해 인터넷 매체와 밀접한 중고생들
이 동계올림픽 오노사건, 여중생 압사사건
을 쉽게 접하면서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확
실히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인 소파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대답한 사람
이 86.4%에 이르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인식 또한 국제평화유
지(7.3%)보다는 석유시장 장악이나 미국의
자배구도 재편의도 때문(86.2%)이라고 생
각하는 이들이 많아 대부분 이번 전쟁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전쟁이라는 시각을 가
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핵 위기 해법으로 ‘북미간에 불
가침 조약이 체결돼야한다’고 대답한 사람
이 가장 많았고 △지속적인 대북지원 △국
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에 동의해
안보·통일분야에 개방적인 입장을 나타낸
새내기가 60%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새내
기들이 보는 우리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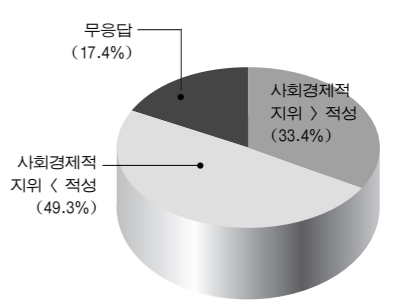
새내기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과제로
‘보수적이고 낡은 정치구조개혁’(33.3%),
‘우리사회 내 불평등·불합리한 구조개혁’
(26.8%),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해체’
(17.3%)이라고 답해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사실을 나타냈다.

응답자의 80.9%가 ‘안정보다는 개혁’에
더 많은 지지를 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구체적 개혁대상으로는 정당과 국회가
64.8%, 재벌이 12.4%로 나타나 기성 정치
권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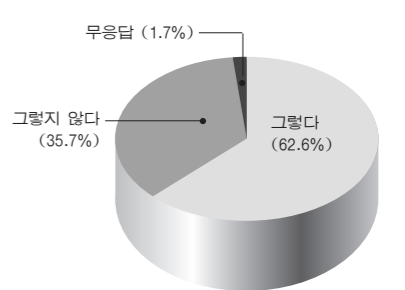
이밖에 ‘남녀평등 차원에서 호주제를 폐
지해야 한다’에 응답자의 83.0%가 동의했
으며 ‘대체복무를 인정해야 한다’에 68.7%
가 동의했다.

사회부
society@dongguk.edu

장래 결정에 영향미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해야 하는가



새내기 난상토론

“현실 알지만 꿈은 꾸고 싶다”



남일연(건축1) 양

동약의 새내기들이 보는
사회, 대학은 어떤 모습일
까. 지난 3월 본사 회의실
에서 새내기 송상철(사과
대1) 군, 양나라(건축1)
양, 남일연(건축1) 양이 03
학번 새내기 사회정치이식
설문결과를 두고 ‘새내기
들의 수다’를 나눴다. 자신
의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한미관계
를 거쳐 학내 보결선거까
지 두루 이어졌다.

‘돈’ vs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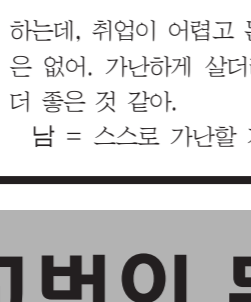
송상철(사과대1) 군

남일연(건축1, 이하 남)
= 고민 1위가 취업이네.
나도 장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돼. 그런데 난 ‘
경제적 풍요보다는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겠다’
(42.6%)는 의견에 완전히
동의할 순 없어. 정말 돈을
조금밖에 못 버는 일이라
면 그 좌절감이 엄청나지
않을까. 난 적성에서 조금
벗어난다면 하더라도 돈이
되는 일을 찾고싶어.



양나라(건축1) 양

송상철(사과대1, 이하
송) = 난 사회학계를 지망
하는데, 취업이 어렵고 돈
많이 못벌겠지만 바꿀 생각
은 없어.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남일연(건축1) 양

남 = 스스로 가난할 거라고 미리
단정짓지마. 열심히

히 살다보면 돈도 충분히 벌 수 있어.
모두 자기 할
탓이지.

송 = 글썄. 그렇까. 대학원까지
졸업하고도 직장을
못 구한 사람 많이 알고 있어.
노력을 하면 무조건 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이상 아닌가. 아무리 노
력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남 = 하긴 그래. 우리 부모님도
정말 열심히 일 하
시는데도 경제적으로 절절
매는데 주위에 주식 투자
하는 사람들은 편하게 몇
억씩 튀겨서 받는 것 보면
화가 나. 설문조사에서 개혁과제
2위(26.8%)가 경제적
불평등이잖아. 이런 정말
큰 문제야.

양나라(건축1, 이하 양) = 난
고등학교 때 최선을
다했는데도 점수가 그만큼
따라오지 않을 땐 “내가
덜했다”고 생각하기로
마음을 바꿨지.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많은
보상을 받고 사회적이
로 높은 지위를 얻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노
력한 거
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스스로 달래는거지.

남 = 난 우리사회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도
드는데. 극단적인 예로
부모님 잘 만나서 몇
백 만원
짜리 옷, 신발로 몸을
감싸는 아이들도 많잖아.
그들은 어떤 노력으로
보상을 받은 걸까.

약속국 싫지만 현실

송 = 이라크에 국군 파병한 것보다
우리나라가 정
말 약하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

남 = 어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게 약속국의
현실이야.

송 = 앞으로 이렇게 계속
비위를 맞춰가야 하나.
미국 없이 자립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길이 무엇
인지는 잘 모르지만.

양 = 우리나라가 정말 힘이
없다는 거야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지난해에는 연초부터
오노 사
건, 여중생 압사사건
촛불시위로 바빴잖아.
인터넷 하

다보면 오노 욕하는 글이나,
반미 시위와 관련된 글이
막 울랐지. 몰려가서
사이버 서명하고, 배너
옮겨 달
고 그랬어.

송 = 미국의 패권주의가 마음에
안 들지만 지금 생
각해보니 사실 그런
군중심리도 좀 있었던것
같아. 실
제로 여중생 압사사건
일어났을 때 사람들
대부분
월
드컵에 정신이 팔려
인경도 안 쓰다가 미군
이 도망가
는 것보고 너도 나도
막 휩쓸려 일어났잖아.

그 때 난 그런 군중심리가
싫기도 하고, 내가 잘
모
른다는 생각도 들어서
많이 머뭇거렸어.
하지만 이젠
대학에 들어왔으니
스스로 공부해서
집회활동도
적극
적으로 하고싶어.

보결선거를 치르고

송 = 형식적인 중고등학교
선거만 경험했던 내
게 이번 보결선거는
색다른 경험이었어.
하지만 보결선거
투표율이 50%를
겨우 넘기는 것
보면서 정치적
무관심이
꽤 팽배해 있구나
하고 생각했지.

남 = 얼마전 투표소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불
합
했는데 “전 아무도
몰라요”라고
말했더니 “아무나
찍
으세요”라고
하더라. 그런 모습은
조금 무책임하게
느
껴져. 나쁜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송 = 공고가 붙은 지 꽤
됐는데 공약조차
몰랐다는
건 문제 아닌가.

남 = 알고 있었지만
그냥 외면 한거지.
이젠 그냥
‘투표’하면 ‘국회’가
떠오르고 ‘국회’하면
더러운 곳
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여기
설문결과를 봐도
가장 개혁해야할
대상에
정당, 국회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
고 있잖아.

학교가 순수한 곳인
하더라도 기성정치인에게
가졌
던
의심이
들기도 하고.

송 = 그런데 그런
사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비롯
된
문제라고
봐. 정치 자체에
혐오감을
갖게
해
결국
무관심을
유도하는
것. 기성정치인과
전혀
관계없는
학내
선거인데도
이미 기성정치권에
‘질려’
버려서
무관심했던
것은
아닐까.

그래도 일단
믿음을
갖고 지켜봐
줘야
하지
않
을까.
그게
진짜
대학생활의
시작인
것
같아.

송윤경
기자

itsU@dongguk.edu



지난호 반전수업
들여다보기 기사
중에서 김
동민(북한)
군의
전장친선로
발제는
토론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교수님의
관여에
의한
것으로
자신의
의견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밝힙
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김동민
군에게
사
과
드립니다.

학교법인 동국학원 및 동국대학교 예산 공고

(2003회계연도 : 2003. 3. 1 ~ 2004. 2. 29)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6조 제4항에
의거 2003학년도 예산을 공고합니다.

2003. 4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서명식
동국대학교 총장 홍기삼

법인일반회계 자금예산서 (단위:백만원)

Table with columns for 과목, 예산액, and 2003/2004 fiscal year data. Includes categories like 1. 당기자금수입, 2. 전입금수입, 3. 투자외기타수입, 4. 고형자산매각수입, 5. 예외비, 6. 투자외기타자산지출, 7. 고형자산매각지출, 8. 미사용잔기이월지출.

학교비 자금예산서 (단위:백만원)

Table with columns for 과목, 예산액, and 2003/2004 fiscal year data. Includes categories like 1. 당기자금지출, 2. 전입금지출, 3. 교육유지비, 4. 장학금, 5. 예외비, 6. 투자외기타자산지출, 7. 고형자산매각지출, 8. 미사용잔기이월지출.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서 (단위:백만원)

Table with columns for 과목, 예산액, and 2003/2004 fiscal year data. Includes categories like 1. 당기자금수입, 2. 전입금수입, 3. 투자외기타수입, 4. 고형자산매각수입, 5. 예외비, 6. 투자외기타자산지출, 7. 고형자산매각지출, 8. 미사용잔기이월지출.

수익사업회계 자금예산서 (단위:백만원)

Table with columns for 과목, 예산액, and 2003/2004 fiscal year data. Includes categories like 1. 당기자금수입, 2. 전입금수입, 3. 투자외기타수입, 4. 고형자산매각수입, 5. 예외비, 6. 투자외기타자산지출, 7. 고형자산매각지출, 8. 미사용잔기이월지출.

수익사업회계 자금예산서 (단위:백만원)

Table with columns for 과목, 예산액, and 2003/2004 fiscal year data. Includes categories like 1. 당기자금수입, 2. 전입금수입, 3. 투자외기타수입, 4. 고형자산매각수입, 5. 예외비, 6. 투자외기타자산지출, 7. 고형자산매각지출, 8. 미사용잔기이월지출.

1. 수입현황
2. 지출현황
3. 등록금 인상근거 분석
4. 등록금 협상

등록금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2003년 예산안 분석

예산책정 합리성 찾아야

과다·축소 책정 ... 구체적 사용계획 공개해야

지난 3월 2003년 예산안이 공개됐다. 이번 예산안은 다른 때와 달리 관·항·목이 모두 명시돼 있어 비교적 구체적이지만 여전히 과다·축소 책정의 구실을 받을 만한 항목이 눈에 띈다.

또한 그동안 제기됐던 △낮은 법인전입금 △높은 자산적지출 △낮은 직접교육비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출규모 = 올해 역시 가결안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2003년 지출규모가 산출됐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초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에 따라 예산을 수정한 것으로 이 역시 '모든 수입은 지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계산해놓은 '예산안'일 뿐이다. 때문에 실제 집행 후 남은 금액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다가 대부분 사립대학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수입을 토대로 작성되므로 그 지출규모가 연초 예산안보다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1999년부터 4년간 매년 11~17억의 자금이 남았는데, 이는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해 예산책정 때 고려했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이다.

또한 지난 2001년에는 15억만 적립하려던 적립금을 120억을 초과해 적립한 적이 있다. 즉 초과한 금액은 등록금으로 걷을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표1>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지출규모 자체의 거품부터 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다 책정 항목 = 자산적 지출은 법인의 자산인 토지·건물을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짓는 데 쓰이는 돈으로 올해 약 250억 책정돼 지출총액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본교와 비슷한 규모의 사립대학 자산적 지출 평균 7.2%의 두 배 남짓 되는 수치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지난 9월 진행된 간담회에서 "지하주차장이나 기숙사 건립 등이 추가 집행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미 정해진 사업이 아니라 추후 집행여부가 결정될 사업이라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들어온 수입으로 집행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편 직접적인 교육환경개선에 쓰일 직접교육비는 얼마나 책정했을까. 2003년 예산안을 토대로 계산한 교육비환원율은 109%로, 지난해보다 약 0.1% 오른 정도

다. 교육비환원율이 턱없이 낮은 것이 비단 우리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등록금이 8~10% 오른 것에 비교하면 민망할 정도다.

49억이 책정된 예비비 또한 눈에 띄는 항목이다. 지난해 책정된 예비비 14억이나, 관례적으로 책정되는 금액 약 20억(자체 지출규모의 1%) 어떤 것과 비교해보아도 많이 때문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자산적 지출과 예비비 모두 사용계획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학교측에서 집행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집행 자체만을 이유로 내세운다면 논의의 진전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축소 책정 항목 = 등록금 수입이 축소 책정됐다는 의식도 지우기 힘들다. 현재 본교 재학생 인원과 지난해 재학생 인원이 비슷하다고 가정할 때, 올해 등록금 수입은 계산상 1천405억이지만 예산안에는 약 53억 가량 빠져있다. 학교에서는 "대학원생과 경주대학생 인

구분	2001(A)	2000(B)	증감(A-B)	
법인회계				
계	4,574,768	6,797,440	△2,222,672	
학교회계	연구적립금	9,318,014	7,973,234	1,344,780
	건축적립금	25,308,298	37,756,030	△12,447,732
	정학적립금	2,595,551	2,110,217	485,334
	기타적립금	1,344,376	923,652	420,724
계	38,566,239	48,763,133	△10,196,894	

<표1> 2001년 까지 누적된 학교·법인 적립금

구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총수입	1189	1316	1165	1430	1289	1489	1681	1527	1894	1894
등록금 수입	904	987	936	1034	989	1045	119	1212	1228	1235
	(76%)	(75%)	(79%)	(72%)	(77%)	(69%)	(7%)	(80%)		
	83억		108억		58억		53억		67억	

<표2> 등록금 수입 예·결산안 대조

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등록금 수입을 축소 책정했다고 밝혔으나 설득력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이제까지 학교측은 재학생수가 줄어든 것이라는 논리로 등록금 수입액을 실제로 적게 책정해왔지만 결산안에서 이보다 80억이 넘는 등록금수입액을 사용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표2>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등록금 수입을 축소시키고 있다"며 "축소시킨 만큼의 돈은 나중에 이월·누적적립금으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미리 수입을 축소해놓고 그 이상의 수입은 마치 예측하지 못했던 추가수입으로 들어온 것처럼 '눈먼 돈'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송윤경 기자
itsU@dongguk.edu

사설

등대신문의 다짐

오는 15일, 등대신문이 벌써 53주년 창간기념일을 맞이한다. 동국의 역사와 절반 이상을 함께 해온 만큼, 지난 50여 년 동안 축적된 등대신문은 동국의 변모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산 보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음에도 몇 년 전부터인가 제기되기 시작한 '대학신문의 위기'는 등대신문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학생들의 의식·생활양식의 변화를 반영, 따라가지 못하고 신문이 독자들과 괴리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변화와 새로운 시도에 소극적인 지면은 학생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고,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올해 본교 서울캠퍼스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등대신문의 인지도와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설문결과 전체 대상 중 50%가 "등대신문을 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그 이유는 눈에 띄지 않거나(44.56%),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21.76%), 재미가 없기 때문(16.58%) 등으로 대답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현 등대신문 홈페이지는 컨텐츠는 물론 매체 사이트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은 급격히 발달하고 있음에도 몇 년째 그대로인 홈페이지는 관심을 끌지 못하고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지난 7일 열었던 '등대신문 평가 공개 토론회'에서도 등대신문을 가장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 홈페이지기에,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기도 했다.

결국 얼마나 독자들과 호흡하면서 그들의 눈높이와 기호를 맞춰 가는지, 얼마나 독자들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지가 앞으로 등대신문 활로 모색의 변수가 될 수 있겠다. 하지만 매년 다시 위기에 봉착하는 이유는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 독자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참여의 장으로서, 지면을 통해 토론을 이끌고 자연스럽게 동아 내 이슈를 형성해 가는 등대신문이 되는 것, 올 한해 등대신문의 지향점이라 하겠다.

"이슈"를 만들어내는 '열린' 신문으로의 발돋움, 진정한 대중 언론 창출의 한길로 가자." 시작할 때 세웠던 이러한 모토대로, 꾸준히 노력하면서 실천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본다.

등대만평

성덕환 pybumbuk@hanmail.net

IRAQ WAR



인상근거 분석

등록금 의존 아닌 법인이 책임져야 할 몫

학교가 등록금 인상 이유로 제시하는 요인은 크게 교직원 보수 인상, 자산적 지출 등이다. 하지만 이를 등록금에 의존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근거라고 할 수 있는가.

교직원 보수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의 일부와 건축 등에 쓰이는 자산적 지출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몫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법인은 오히려 학교에, 학생들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올해 예산안을 봐도 법인전입금(경상비 전입금+법정부담전입금+자산전입금=49억 여원)은 전체예산의 2.5%에도 미치지 못할만큼 턱없이 적다. 특히 예산안 지출 항목에서 명시한 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 건설가계정 등 자산적지출의 합은 무려

250억 여 원이나 되는데도 자산전입금은 12억 여 원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이는 추정한 액수일 뿐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전례로 봤을 때 "전입금이 더 들어올 지도 모른다"는 학교측의 말처럼, 법인을 신뢰하기는 힘들 듯하다. 결국 법인이 부담해야 할 자산적 지출액의 대부분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법인은 진정한 본래의 '의무와 역할'을 다할 만큼의 재정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할까.

2001년까지 법인 누적적립금이 45억 여 원임을 감안할 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여실히 드러난다.<표1> 또한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액과 실수입액을 비교해 볼 때, 법인이

구분	토지(㎡)	임대(㎡)	건물(동)	주식(원)	예금(원)	기타(종)	계
총량	107	76	-	1,805	17	2	
단위	112,644㎡	48,352,162㎡	0㎡				
평가액	843,826	18,683,609	-	9,025	5,706,633	1,549,968	26,793,061
수입액	10,905	-	-	451	641,826	1,724,000	2,377,182

(단위: 천원)

<표3> 수익용기본재산 내역(00년)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간단전입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익용기본재산을 많이 확보해야 함은 물론 그 수익성도 높아야 한다. 하지만 2000년 기준 수익용기본재산 내역으로 살펴보면 보유액은 267억 여 원인데 비해 실수입액은 23억 여 원에 지나지 않는다.<표3>

이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 및 임야가 수익용기본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은 토지 및 임야와 같은 저소득 수익용기본재산을 매각하고, 고수익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등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 편집인: 이창영 | 부주장: 김구분 | 편집국장: 류병철 | 편집장: 한보라

인터넷 등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등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02)2260-3491·2, 등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7가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성동 707
전화 (02)2260-3491·2 | 팩스 (02)2279-1270 | 전화 (054)770-2368 | 팩스 (054)770-2067

동국대학교 대학원 특별전형 (2003학년도 후기)

★ 표기학과는 경주캠퍼스에 개설된 학과임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일어일본, ★한문, 중앙중문, 사, 미술사, 철, 문리문화, 교육, 유아교육,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북한, 신문방송, 경제, 경영, 무역, 회계, 정보관리, ★관광·호텔경영, 식품자원경제, 지리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일어일본, 중앙중문, 사, 미술사, 철, 문리문화, 교육, 유아교육,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북한, 경제, 경영, 무역, 회계, 정보관리, 관광·호텔경영, 식품자원경제, 지리
자연과학계	수, 물리, 화, 통계, 반도체과학, 수학교육, 농, 임, 생물, ★조선, 기생, ★간호, ★생물공학,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환경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시스템공, 기계공, 정보통신공, ★전자계산, ★안전공	수, 물리, 화, 통계, 반도체과학, 수학교육, 농, 임, 생물, 기생, ★조선,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환경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시스템공, 기계공, 정보통신공, ★전자계산, ★안전공
공 학 계	건축학, ★인간공학, ★전자계산(경제학과), 국제통상학과, 정보산업학과(합동과정)	건축학, ★인간공학, ★한문, ★의

■ 국가지원 연구프로젝트 사업 및 관련학과

분야	지원기관	사업단(팀) 및 연구센터	신청(관련)학과	특 점
인문사회	교육인적자원부	한국인사상사 교육연구원	불교학과	장기(2년)의 연구 및 학과별 선발 절차를 거쳐 장학금 지급
		한국인사상사 100년 연구팀	문리문화학과	참여 대학원생에게 매월 연구비 지급
공 학 계	한국과학기술부	조선불교미술 연구팀	산학과	참여 대학원생에게 매월 연구비 지급
		연혁록 조성사업 연구팀	국문학과	참여 대학원생에게 매월 연구비 지급
		연혁록 해설부	국문학과	참여 대학원생에게 매월 연구비 지급
		[장성문화]에서의 한국학 자료 발굴, 수집 및 연구팀	철학과	참여 대학원생에게 매월 연구비 지급
자연계열	환경부	환경친화형 O&E료 개발팀	화학학과	참여 대학원생에게 매월 연구비 지급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 연구센터(ERSC)	물리, 반도체과학과
공학계열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 연구센터(ERSC)	전자공학과	참여 대학원생에게 매월 연구비 지급
		산업기술부	산업용 공정제어발전 표준화팀	기계공학과
의약계열	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신약연구개발사업	참여 대학원생에게 매월 연구비 지급
		과학기술부	한의학연구실	한의학

◆ 모집요강: 각 학과별 약간명
◆ 본 대학원은 석사과정 3학기, 박사과정 4학기(내) 수료 가능함
◆ 석사과정: 불학, 경찰학, 화학, 생물학, 기생학과는 서울, 경주캠퍼스 공동 개설 학과임
◆ 석·박사과정: 공학 및 석사과정 출신자에게 관계없이 전학의 기회(한외, 의약, 간호학과는 동일학과에 한하여, 다만 간호학과는 3년제 대학 간호학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지원가능함)
◆ 연수과정: 대학원생과 영화학전공은 이론임

지원자격
◆ 석사학위과정:
1) 국내·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02년 8월 취득예정자
2)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박사학위과정: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02년 8월 취득예정자
2)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전형일 2003. 05. 17(토) 10:00부터
원서교부 2003. 4. 21(월) ~ 5. 2(금) 09:00 ~ 17:00 까지

인터넷주소 : www.dongguk.edu/gs 대학원홈페이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 대학원 교학부 ☎ 2260-3094~5,3116, Fax 2260-3685)로 문의바람.

Dongguk Career Elite Program 이수 신청안내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03년 2학기부터 시행되는 Dongguk Career Elite Program은 취업을 위하여 저학년부부터 체계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다양한 강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신청지역: 매년 2학년 1학기 재학생 모두.
2. 신청방법 및 기간: 2003. 4. 7(월) ~ 18(금)까지 취업지원팀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사전입력 필요함).
3. 교육내용

프로그램	강 의 명	학 점	학 년	이수구분	비 고
외국어능력	영어회화 I, II	각1학점	1학년	교양필수	기 개설
	실용영어 I, II	각1학점	1학년	교양필수	기 개설
정보능력	컴퓨터 활용과 실습 I, II	각1학점	1학년	교양필수	기 개설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1학점	2학년	자유선택	사이버(신규)
의사소통능력	비즈니스 협상실	1학점	2학년	자유선택	사이버(신규)
	인간관계 향상	1학점	3학년	자유선택	사이버(신규)
대인관계능력	감동관리	1학점	3학년	자유선택	사이버(신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1학점	3학년	자유선택	사이버(신규)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개발	1학점	3학년	자유선택	사이버(신규)
	전문능력향상 과정	1학점	4학년	자유선택	사이버(신규)
자기관리능력	성공인의 자기혁신 과정	1학점	4학년	자유선택	사이버(신규)
	사회봉사활동	각종 사회봉사활동 실적 36시간 이상(1학점)		참가할 봉사단	

* 기 개설된 강좌는 교육과정 이수 기준에 의함.

4. 인증기준: 4학년 1학기까지 DCEP교육내용 모두 이수하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4학년 1학기까지 성적 3.5 이상.
- 외국어 토익(850/인문, 800/자연), CBT(250), 텡스 780점 이상.
- 워드프로세서(1급), 인터넷 정보 검색사(2급), 컴퓨터 활용능력(2급) 중 1가지 이상 취득.
- 사회봉사 활동 36시간 이상.

5. 혜택
가. 졸업시 인증서 발급 및 학적부에 인증자료 등재.
나. 외국어 시험 응시료 지원.
다. 졸업시 취업서류 작성 후 최초 응시 점수를 기준으로 차회 응시 성적이 100점 이상 향상 시: 응시료 전액 지원(토사상품권으로 지급).
- 단, 토익외의 시험의 경우와 지원 회수 등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서 별도로 지원함.
라. 취업시 최우선적으로 추천.
마. 방학기간 중 각종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바. 국내 주요 대기업에 인증자 명단 홍보 및 홍보.

6. 기타
2학년 1학기 중에 신청지에 대한 진로지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취업지원팀 전화(2260-3055)나 e-mail(dcep@dongguk.edu)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 생 처

언어연구교육원

동대신문 평가 공개 토론회

“학내 여론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단순보도 탈피 · 참신한 시도로 독자 공감 얻어내길



본사는 창간 53주년을 맞아 '동대신문 평가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학내 주체들(교수, 학생, 직원)과 본사 부장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동대신문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해야 할 점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일 시 = 4월 10일 오후 6시
장 소 = 중앙도서관 A/V실

발제자 =
△최일우 (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 과장) - 종합보도 · 보도면 평가
△전호진 (사범대 역교3) - 해설보도 · 사회면 평가
△정기훈 (경영대 정보관리4) - 문화 · 문화테마면 평가
△구승희 (윤리문화학과 교수) - 학술면 평가

사회자 = 한보라 편집장

■ 종합보도 · 보도면 평가



최일우 (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 과장)

●●
정보 제공 충실히 수행
단순 보도 탈피해야

최일우(이하 최) = 이번 학기에 현재까지 발행된 신문의 보도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교 관련 기사가 47%, 학생회 관련 기사가 21%를 차지해 독자들에게 학교와 학생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학신문 본연의 자세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학원, 교직원과 관련된 보도 기사는 부족하거나 전무한 상태여서 이 부분에 대한 보도를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동안 종합보도면의 톱(TOP)기사를 분석한 결과 총학생회 선거 관련 기사가 3회, 등록금 인상과 관련된 기사, 총장취임 관련 기사가 각각 1회를 차지해 '총학생회 선거가 이번 학기 가장 큰 이슈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총학생회 선거가 지난 학기 투표율 미달로 무산돼 이번 보궐선거에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이해되지만 '선거 이외에 다른 이슈를 놓쳤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르게 해석하면 학생회에 대한 편향적 보도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조승기 대학부장(이하 대학부장) = 일단 종합보도면은 학내 뿐 아니라 대학사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기사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내 사안이 전체 기사의 90%이상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반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대학사회 전반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학생회 편향에 대한 우려는 최근 5개호의 신문만을 분석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동대신문이 학내 특정 주제만을 위한 신문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기사 대상을 떠나 학·내의 전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보도할 것이다.

최 = 그동안 동대신문 보도면은 기자들이 출입처에서 제공받은 학사일정 등의 기사 소스를 단순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본교 홈페이지, 웹진 등을 통해 정보를 받는 독자들에게 큰 효용을 불러일으킬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따라서 동대신문은 중앙 행정 부서 중심의 홍보성 보도기사에서 벗어나 발굴·기획 기사를 신문에 게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사여구 사용 등으로 알아볼 보도기사 입장을 분석한 결과 중립적인 기사가 81%를 차지해 비판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대학부장 = 보도면은 1, 2학년 기자들이 행정 부서와 각 단과대 학생회를 출입하고 취재하면서 발굴한 문제점 등을 심층 취재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단순히 취재원이 던져준 소스를 그대로 기사화 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대학부는 편집노선인 '변화를 선도하고 참여를 이끌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자'에 따라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해설보도 · 사회면 평가

전호진(이하 전) = 졸업과 취업에 대한 졸업생들의 난상토론 기사라 이라크 전쟁을 '안네의 가상 편지'를 통해 살펴보는 것 등은 독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기사였다는 생각이 든다.

취업과 관련된 문제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봤을 법한 문제이며 가상 편지 등 올해 사회면에서 시도한 새로운 형식 역시 독자들이 쉽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촉매작용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업관련 기사의 경우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사회를 탓하기만 하는 성격이 강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실질적인 대안은 기사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호진 (사범대 역교3)

●●
독자들의 공감 속에서
'건강한 여론' 만들어야

송윤경 사회부장(이하 사회부장) = 독자들의 공감에 대한 부분은 '독자의 일상 속에서 사회 진보의 가능성을 찾아라'라는 사회부의 편집기조와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매번 아이টে임을 선정하거나 기사 형식을 정하는 데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취업 기사의 경우 단순히 몇몇 학생들의 '취업 성공기'를 기사화한다면 취업과 관련된 사회구조적인 모순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대다수의 졸업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명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부딪쳐서 이겨낸 사람이 있는가를 통해 대안도 함께 살펴보려 했지만 이 부분이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전 = 대학신문의 역할과 기능은 단순한 사실 전달자를 넘어서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총학생회 선거와 등록금 인상문제로 많은 지면을 할애했던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위의 기사 등을 통해서 공개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학생들의 관심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1361호에 실린 한총련 합법화 광고는 단순하고 무미건조한 호소문보다 전달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도 정체성과 방향성을 갖고 일관적인 모토를 세워 목적에 맞는 기획공고를 지면화 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사회부장 = 해설보도면은 '깊이 있는 논제를 이슈화하라'를 편집기조로 잡고 학·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슈를 공론화 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지면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획공고는 본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슈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안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한 방안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문화 · 문화테마면 평가



정기훈 (경영대 정보관리4)

●●
파격적 편집 지속하고
학내 문화활성화 기여해야

정기훈(이하 정) = 일단 동대신문 문화 · 문화테마면은 문화잡지나 웹진 등이 추구하는 파격적인 편집을 선보여 눈을 즐겁게 해준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또한 기사 곳곳에서 대학문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흔적이 눈에 띈다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문화면이 학생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담은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일방적인 행사 소식이나 문화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서울대 인터넷 신문의 경우 '문화공연 세분업'이라는 이름으로 공연평까지 적극적으로 기사화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단순한 보도를 탈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학내 문화 행사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학생들 사이에서 '이슈화'돼 있는 테마를 잡아 기사화해야 할 것이다.

김하나 문화부장(이하 문화부장) = 현재 문화면이 학내 문화 행사에 대한 지면화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문화면은 문화나 사회현상을 보다 쉽게 풀어낼

수 있고 다른 면들에 비해 독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면이다. 문화면의 역할은 광범위한 문화 중 대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문화현상을 찾아 대학 언론의 참신한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문화부는 학생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기사의 방식을 대담, 인터뷰 등으로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외에도 문화면이 학내문화, 나아가 대학문화를 살리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 본사 문화부 주최의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다.

정 = 학·내 외에서 진행되는 모든 문화행사를 몇몇 기자가 취재하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전문성에 대해서도 다소 취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연극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 연극에 대한 기사를, 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락공연에 대한 기사를 쓰는 방향을 고민해 봤으면 한다. 그렇게 된다면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학내·외 문화행사에 접근할 수 있으며 협소한 취재 범위를 넓히는 것은 물론 독자들이 동대신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부장 = 문화행사 기사를 객원기자 형태의 독자들이 쓴다면 연극이나 영화 등의 경우 다소 편향적이고 홍보에 치우칠 가능성이 많다. 때문에 각 분야에 대한 기사를 전문성을 띤 객원기자가 쓰기보다는 충분한 취재를 통해서 기자의 시각을 좀 더 전문적인 눈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독자들의 참여나 다양한 시각에 대한 문제는 매체비평이라는 칼럼의 필진을 학생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문화행사나 문화운동 등을 일리고 그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획공고를 활용하는 방안도 세우고 있다.

■ 학술면 평가

구승희(이하 구) = 학술면은 대학신문뿐 아니라 일간지에서도 골치를 썬다는 지면 중 하나이다. 박사급 전문가 두, 세 명의 기사가 있어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독자들의 불만이 생기기 때문이다.

동대신문 학술면은 일단 학생 기자의 참여가 적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특정 주제에 대해 학생 기자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 대학신문의 특징·장점이며 그것이 교육적 효과의 차원에서라도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타의 학술면에서도 쉽게 제기되듯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앞으로 시사적인 주제, 학문적 논쟁 등의 다양한 학술 기사를 발굴하고 학생들에게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주는 학술면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보라 학술부장(이하 학술부장) = 학술적 이

슈는 사회·문화·경제적 이슈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학술부는 '전문적 시각, 심층적 사고, 실천적 취재로 대학지식인을 위한 교양과 지성을 담아내자'를 편집기조로 잡고 '대학 지식인' 사이의 학문적 담론과 이슈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아이টে임이 학·내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친일문학, 평화학, 학벌 등이었던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자의 학습정도나 전문성이 떨어져 기획력과 심층성이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기자가 기사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학술자문위원을 구성해, 보다 전문성을 갖고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구승희 (윤리문화학과 교수)

●●
전문성 강화 속
학생기자 참여 필요

구 = 현재까지 두 번 연재된 '지자와 독자의 이윽기는 만남' 기획기사의 경우 최장집 교수와 학생의 대화가 책을 중심으로 이뤄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읽지 않는 학생들에게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좋은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한홍구 교수와의 만남은 한홍구라는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야기에 주목한 나머지 '대한민국사'라는 책에 대해서는 조망하지 못해 문제로 지적된다.

학술부장 = 저자와 독자의 이윽기는 만남은 동대신문에 학생들의 직접적 참여를 이끌기 위한 한 방안으로 기획한 기사이다.

하지만 기획상의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지면화돼 부족함이 많았다. 앞으로 기사를 기획함에 있어 준비를 철저히 해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리=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지난 10일 중앙도서관 A/V실에서 본사주최 '동대신문 평가 공개 토론회'가 진행됐다.



동대신문 창간 53주년을 맞아 동대신문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 만족도, 개선방안 등을 알아보고자 본고 통계연구소에 의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편집자

독자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선 신문 돼야

인지도 · 만족도 부정적 평가 ... 흥미유발로 참여 유도 필요

조사방법

이번 조사는 본고 재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은 단과대와 학년을 기준으로 비율 층화 추출법을 사용했으며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해 조사원이 직접 응답자를 찾아가 설문지를 배부한 후 응답자가 기입하는 방법으로 실시됐다.

학년별 분포

- 1학년 96명(24.00%)
- 2학년 84명(21.00%)
- 3학년 99명(24.75%)
- 4학년 121명(30.25%)

동대신문 홈페이지

정보제공 · 업데이트 신속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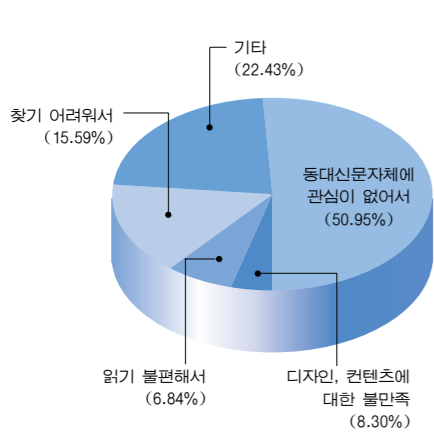
동대신문 홈페이지 인식도에 대한 설문에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27.6%에 불과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홈페이지 존재여부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홈페이지 존재여부를 아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접속 빈도에 대한 설문에서 '거의 접속하지 않는다' '전혀 접속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각각 35.58%, 15.38%로 나타나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와 학생들의 접속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 중 50.95%의 학생이 '동대신문 자체에 관심이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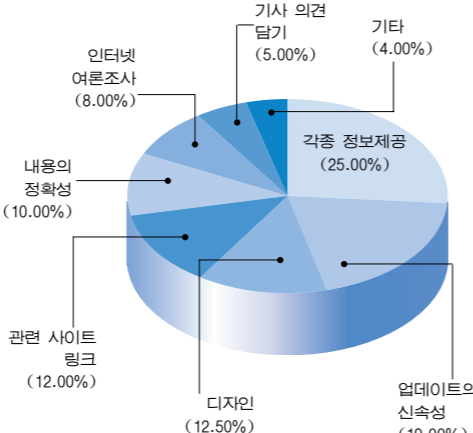
서'라고 답변해 학생들이 동대신문에 무관심한 이유에 대한 원인규명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들이 홈페이지에 추가되거나 개선됐으면 하는 점은 각종 정보제공이 2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업데이트의 신속성(19%), 디자인(12.5%) 등이 뒤를 이었다.

동대신문 홈페이지의 경우 주간으로 발행되는 신문 제작과 함께 일주일에 한번 업데이트 되며 내용 역시 종이신문을 그대로 업데이트 해 홈페이지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빠른 정보제공과 폭넓은 기사 업데이트로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홈페이지에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 홈페이지에 추가되거나 개선됐으면 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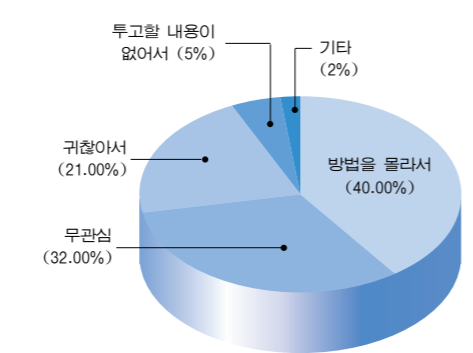


독자참여

투고 경험 불과 10.48%

동대신문의 독자 참여 칼럼인 소나기, 음악광장, 열린글터 등에 글을 써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10.48%에 불과해 학생들의 참여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이 '방법을 몰라서', '무관심'이 각각 21.71%와 17.64%로 나타나 앞으로 동대신문사는 독자를 참여시키기 위해 홍보에 노력하는 한편,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신문을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동대신문에 투고하지 않는 이유는?



동대신문 구독

배포방식 변화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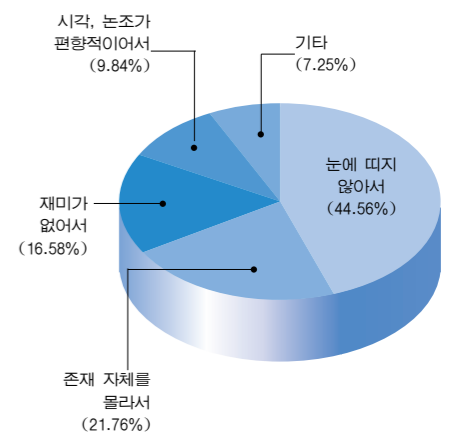
동대신문 구독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구독 학생과 비 구독 학생의 비율이 각각 5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동대신문을 읽는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 '무료가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60.2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학사정보를 얻기 위해'(25.45%)가 뒤를 이었다. 이는 학생들이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신문을 구독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앞으로 동

대신문은 재미있는 기사 제공 등으로 학생들이 목적의식을 갖고 신문에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대신문을 읽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 중 44.56%의 학생이 '눈에 띄지 않아서', 21.76%의 학생이 '존재자체를 몰라서'라고 응답해 동대신문 배포 방식의 변화와 신문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동대신문을 읽지 않는 이유는?



동대신문 인지도 · 만족도

참신성 · 유익성에 부정적 반응

동대신문 인지도에 대한 설문은 신속성, 정확성, 공정성, 참신성, 유익성의 5개 부문으로 나눠 '5점 척도' 방식(매우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조사했다.

우선 신속성에 대한 설문에서 학생들은 학내소식의 신속성에 대해 평균 2.95점, 학외소식의 신속성에 대해 평균 3.03점으로 답변해 동대신문의 신속성을 보통이나 그 이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참신성과 유익성에 대한 설문 역시 각각 평균 2.89점, 2.94점으로 답변해 보통이나 그 이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대신문이 주간으로 발행되는 만큼 신속성에 대한 부분은 어

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참신성과 유익성 부분에서 보통 또는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반영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정확성에 대한 설문에서 학생들은 오탈자 여부에 대해 평균 3.29점, 기사 내용의 정확성, 문장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 각각 평균 3.18점 3.21점으로 답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공정성에 대한 설문은 기사 종류의 편향 여부에 대해 평균 3.06점으로 답변해 보통이나 그 이상 수준으로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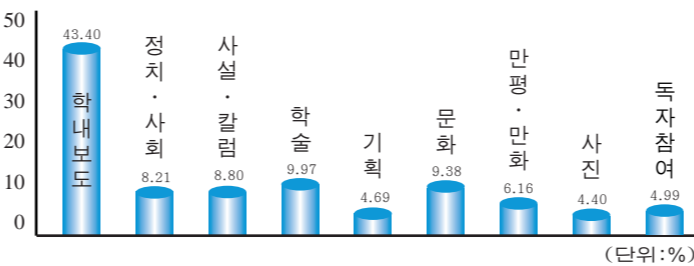
만족도 부분은 기사분량과 편집 · 디자인에 각각 평균 2.89점과 2.93점으로 답변했으며 내용의

다양성 부분 역시 평균 2.99점으로 답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기사의 유용성에 대한 설문에는 3.05점으로 답변, 보통 혹은 그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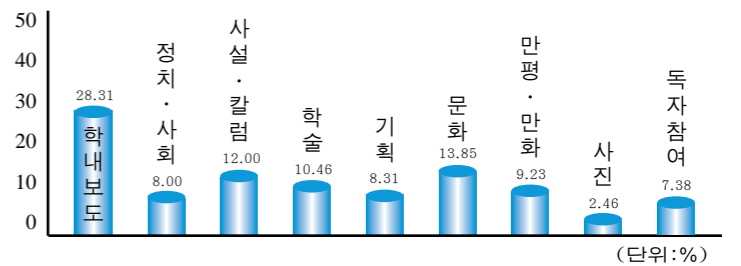
한편, 학생들이 주로 읽는 기사는 학내보도가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유는 관심부인이기 때문, 학내소식을 알기 위해 등으로 답변했다. 학내보도 다음으로는 학술(9.97%), 문화(9.38%) 등이 뒤를 이었으나 대체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또한 좀더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에 대한 설문은 문화(22.98%), 정치사회(13.04%), 학내보도(11.49%)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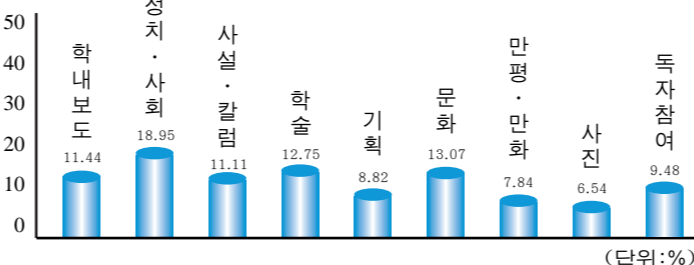
● 주로 읽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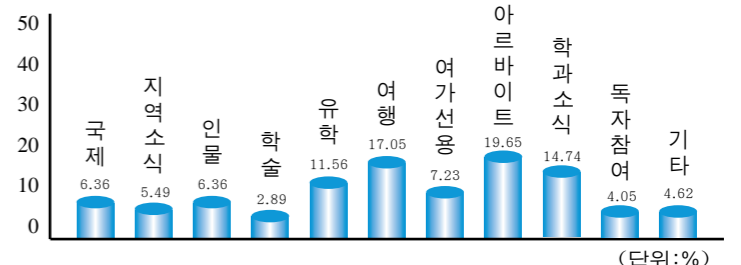
●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 가장 많이 개선됐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 강화·추가됐으면 하는 기사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소나기

내가 동대신문을 보는 이유, 보지 않는 이유



- △식단이 나와있어서요.(매우 유용함)
△지하철 시간 때우는데 최고다!
△I like 동대신문
1. 급할 때는 휴지대용 2. 앉을 때는 방석대용
3. 비올 때는 우산대용 4. 칼을 때는 받침대용
△동대신문이라고 너무 학내뉴스만 실린다.
4학년에게 필요한 취업정보 기타 시사적인 내용이 많았으면...
△동대신문은 대충 썩어있다. 정확한, 깔끔한 신문 정리대를 만들어 놓아주시면...
△원흥관에서는 못봤다!!
△난 동대신문 애독자!
우리 학생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어 좋아요!
I love 동대신문.
△내가 쓴 동아광장은 실리지 않는다.
△재미없어요.
△안분다. 언제 어디서 주나요?
한번도 못 봤어요.
△동대신문이 한총련 신문이냐?
너무 편파적이다.
△학교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보지만, 형식적인 듯 싶네요. 내용도 부족하고...
알찬 내용 많이 넣으셨으면 해요.
△스크랩 하고 싶을 정도로 알찬 기사를 써주세요!
△기사가 재미 없으니깐요.
모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가 꼭 무거운 사안만은 아니잖아요.
△유용한 정보.
내용대로 좋은 기사가 있어서 좋습니다.
돈도 안들고요.
(학생참여를 더욱 공개적으로 권장하면 더 많이 읽지 않을까요? 이런 칼럼도 좋지만 독자투고 같은... 수고하세요!)
△회전무대 너무 재밌어요.
△읽을 거리 많이 부족. 보다 많은 유용한 정보가 폭넓고 깊이 있게 실렸으면...

TEL : 2260-3491·2
FAX : 2279-1270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 또는 사진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문고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등록금 인상반대 운동은 대학에서 연례행사가 되어 버렸다. 사립대에 비해 저렴한 국립대 역시 기간 기성회비 편법인상 등을 통해 등록금을 꾸준히 인상해 등록금인상률은 사립대와 별 차이가 없다.
국민들의 경제적 형편에 비교해 가계의 높은 교육비 지출은 교육불평등의 심화 문제로 표면화된 지 오래다. 교육불평등은 다시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져 사회불평등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등록금 인상반대운동의 주장은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그리고 공공성의 강화로 요약된다. 그러나 대학운영의 민주화와 투명화를 통한 대학재정의 합리적 운용은 상식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사학재단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위한 가시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면 국가 교육재정을 확대시키면 어떨까. 그것 또한 간단치 않다. 교육재정 확대는 절대적 규모를 증가시키는 방법과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 구성비의 증가 혹은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분야에 대한 예산 배정의 증가를 통한 교육재정의 확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세금 인상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세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교육비 인상의 편법일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의 간접세 중심의 교육세 부과체계에서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 구성비를 증가



논단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누구를 위한 교육재정인가

시키거나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분야에 대한 예산 배정의 증가를 통한 교육재정의 확대 또한 간단한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일부에서는 국방비 감축을 통한 방위세 일부를 교육세로 전환할 것, 현행 교육세 부과 방식을 간접세에서 직접세인 누진소득세의 방식으로 전환할 것, 그리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기업이익의 일정 부분 등에 특별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안보상 이유, 누진세율 확대, 지방세수 감소, 투자유치 및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의 문제로 간단치가 않다.
그렇다고 교육예산의 10%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고등교육분야에 대한 예산을 일부에서 주장하는 20% 수준으로 증액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이는 것은 또 쉬운 일인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금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방만한 대학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학운영의 민주화와 투명성의 강화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의 개정이나 당국의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성의 강화 차원에서 국가 교육재정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사회 역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사실 각 대학은 등록금 인상의 이유로 대학발전을 내세운다. 문제는 등록금 인상은 대학발전에 필요한 여러 필요조건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사실 대학 외부에서 바라보는 대학사회에 대한 시선은 차갑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에게

대학은 적극적 선택대상이 아니라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강요받은 선택'이 되고 있다.
대학 외부에서는 묻고 있다. 왜 저 공장 같은 대학들을 그것도 수요가 없는 똑같은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들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국가 교육재정의 확대는 국공립대학이라고 하여 정당화되지 않는다.
우리의 경우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내용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다. 지난 2월 등록금 인상 문제와 관련한 어느 토론회에서 국공립대의 입장을 발표한 분이 "국공립대학은 정부가 국가발전에서 필요한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했다는 점에서 개인 또는 법인이 자신들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사립대학과 비교하기는 무리"라는 얘기를 듣고, 우스개 소리로 사립대는 국가발전에서 저해되는 인재를 육성 한다고 되물을 적이 있다.
지금처럼 교육불평등이 확대 재생산되는 현실에서 국공립대에 대한 국가 교육재정의 확대는 불평등을 보다 심화시킬 뿐이다. 차라리 국공립대가 경제적인 이유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과만 받아들인다면 일반적인 재정확대 요구가 그나마 실득력 있을 것이다. 사립대이건 국공립대이건 국가의 교육재정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대학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대학은 우리 사회에 보여줘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대학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주진완 (국교4)
한총련 정치 수배자
"어려움 많지만 학생운동 포기하지 않을거예요"
학생운동을 하면서 사회를 남보다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의식을 키우고 있지만 대학생들이 흔히 즐기는 영화감상 등의 취미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는 주 군. 그는 얼마 전부터는 귀에서 매미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리는 '이명증'에 걸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수배의 낙인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또한 교생실습을 나가지 못해 졸업도 연기된 상황이다. 일반 학생들의 경우 3, 4학년이 되면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를 계획하지만 주 군은 미래를 구상당하고 건강도 지킬 수 없게 된 것이다.
"사람들과 함께 '호흡'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알게 됐어요. 학생회 일을 하면서 '나'만을 위해 사는 습관은 버렸죠."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학생운동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신념' 뿐 아니라 사람들의 '정'이 있기 때문이다. 주 군은 현재 이러한 정에 이끌려 35대 총학생회에서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총련 수배자들이 '수배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사회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학생운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주진완 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의 미래에 그동안의 어려움을 추억으로 넘길 수 있는 '자유'가 함께 하길 기대해본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보궐선거 논란에 대한 총대의원회의 입장
"지난 잘못 교훈삼아 더 나은 선거진행 위해 노력할 것"

지난 2주간 동대신문에 실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의 잘못에 대한 따끔한 지적 잘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 학우분들도 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위한 중선위는 2월 21일에 구성되었으나, 중선위원으로는 저를 포함해 불교대와 경영대 대의원장(단과대 선관위원장) 이렇게 3명만이 있었습니다. 투표 일주일을 전후로 해서 단과대 대의원장들이 선출되고 그 때에서 단과대 선관위가 구성이 되면서, 중선위원이 선관위원을 만나며 선거에 대한 교양도 진행하고 각 선분과 세칙도 다시 확인하는 일을 했어야 하지만 중선위원의 수가 부족해 중선위원이 선거 공고부터 투표용지 제작 등의 실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선위가 미숙할 수밖에 없었고 깔끔하게 선거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학우분들께 양해를 구하며, 이번 선거를 교훈 삼아 다음 11월 선거는 잘 진행하려고 합니다.
선거기간 선거시행세칙의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선거시행세칙을 명확하게 개정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없앨 것이며, 이밖에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들도 선거시행세칙에 반영하여 이후에 좀 더 나은 선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선된 총·부총학생회장님께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선거기간 학우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잘 지켜나가시어 열서 지켜보겠습니다.
35대 총대의원회 위원장 임수욱(공대 화공4)

교육부, 열려있는 '공유의 장' 마련해야

요즈음 한 시골의 학교장의 자살사건으로 교육계가 떠들썩하다. '차 한잔', 이것이 바로 그 큰 사건의 원인이다. 정확히 학부모단, 교장단 그리고 전교조간에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갈등이 차 한잔으로 인해 표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슬픈 것은 끝없는 삼자간의 변명 속에서, 교육의 주인공인 학생들은 소외되고 그들의 가슴은 멍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들은 '교육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의 전환'이란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다. 그러나 난무하는 용어나 정책 속에서, 무엇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인가라는 그 초점을 잃어가고 있다. 교육의 현자인 이 조그만 시골 학교의 사건만을 보더라도, 교장단은 교장단대로, 전교조는 전교조대로 자기들의 주장만을 늘어놓고 있다.
또한 학부모단은 '교장의 자살'에 대한 정서적인 움직임에 무조건 교장단에 손을 들어주고 자신

들의 등교를 거부시키고 있다. 더욱이 한국교원노동조합의 대변인은 '전교조의 무리한 월권행위'를 지적하는 것을 보면, 교사집단내의 사정도 짐작은 간다.
여기에서 어느 쪽이 잘못했다 잘못했다 이야기할 생각은 없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교장·교감들의 횡포, 우리나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교조의 큰 역할과 '행동방식'의 문제점, 그리고 학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의 문제점들은 심심치 않게 들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문제해결을 위한 교차점을 찾지 못하고 끝없는 평선상에서 '따로 국밥'만을 주문하고 있다.
교육부의 행정님네들, 나 몰라라 하지말고 차 한 잔을 준비할 '공유의 장'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학교에도 새로운 리더의 작은 정부가 시작되었는데 우리도 차 한 잔 하면 어떨까.
조희욱(교육개혁추진단 연구원)

“동대신문이 바라다”
학내 3주체가 말하는
교수회
객관성 바탕으로 사실 보도해야
우선 창간 53주년을 맞이하여 동대신문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을 전한다. 격동의 시기였던 1950년 선구자적 대학언론의 가치를 높이 들고 출발,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대신문이 꿋꿋이 그 당당한 모습을 이어온 것은 그 동안 동대신문사에 몸 담았던 많은 분들의 노고의 결과라 할 것이다.
신문의 본령은 무엇보다도 사실의 보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보도의 생명은 그 내용의 정확성과 객관성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결여될 때에는 신문은 신문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휴지조각으로 화하고 말 것이다. 요즈음 도하 일간신문의 보도 태도와 관련된 논란도 바로 이런 점으로부터 연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대신문은 특히 학문과 양심의 보루인 대학에서 발전되는 것이니 만큼 이 점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다. 동대신문은 일반신문이 아니라 대학의 신문이고 대학신문 중에서도 동국대학교의 신문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간단하다. 동대신문은 대학사회 모든 구성원과 함께 동국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동대신문이 학생들의 취재와 편집을 통해 이루어진다 해서 그것이 곧 학생들만을 위한 신문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동대신문은 학교의 모든 구성원 그리고 졸업한 동문들까지 읽는 전 동국인의 신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동대신문은 전동국인에게 사랑받는 신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 언급한 것은 어찌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을 존중하는 신문이야말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상식에 기반하면서 정론을 펴는 동대신문이 되기를 바란다.
박종훈(윤리문화학)
교수회장
직원노조
학내 제주체 목소리 담아내야
그동안 학내의 여론수렴과 표출을 통한 건강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써오신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이제 개교 10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각 구성원들은 '동국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앞두고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새로이 총장님이 부임하면서 합리적 이성이 자연스럽게 소통되는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여러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동대신문사는 언론기관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동국 100주년이 동국인들의 자존과 명예를 새삼 확인하는 자리가 되도록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동대신문의 창간 53주년은 지나간 시간을 생하는 수준에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동국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면서 건설적인 미래를 향한 실천적 노력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대학현실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여 동국의 혁신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대학의 삼주체인 학생·교수·직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소신을 창출하여 동국발전이라는 공동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도 동대신문이 정론직필로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동국 가족들간의 교류를 넓히는 가교로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길 당부하며, 동국발전의 믿음직한 동반자이자 친근한 안내자로 함께 해주기를 기대한다.
강형석
직원노조 지부장
총학생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문되길
53년의 역사와 전통을 2003년에도 계승 발전 시켜가리라 믿는다. 대학언론의 대표적인 매체로서 폐기가 느껴지고 지면 속에서 수많은 시도를 하는 동대신문이 되었으면 한다.
지금 많은 대안언론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미 기존 언론권력의 성역은 무너져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때 53년의 역사와 전통이 권위와 관성을 낳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통에 집착하기보다는 매주 새롭게 태어나 대안언론의 소임에 더욱 매진하는 것이 동대신문의 올바른 '길'일 것이다.
독자참여 확대를 통한 토론, 다양한 의견개진, 쟁점 현안, 사회현상에 대한 설문 분석 등 학내외의 여론을 생동감있게 담아내는 동대신문을 기대한다.
인터넷을 통한 동대신문도 기대한다. 독자가 먼저 기다리고 독자의 손이 먼저 가는 동대신문이 되었으면 한다.
동대신문과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방안으로 '군대에 간 친구에게 동대신문 보내주기 운동'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군대에서 받아보는 동대신문, 생각만으로도 뿌듯하지 않은가.
동국의 학생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에서는 총학생회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오늘도 취재와 원고작성에 분주할 학생기자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싶다.
창간 53주년을 맞는 2003년, 또 한 번 건승을 기원한다.
유영빈(경영4)
총학생회장

특별기고 - 황사 막을 수 있다

사막지역 조림사업 등으로 예방해야

봄은 왔지만 하늘은 맑지 않다. 화창한 봄 날씨가 황사로 인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사는 인체 질병을 비롯하여 동물구제역을 이동시킬 소지가 있어, 최근 정부에서는 황사 발생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국민 행동요령을 발령한 상태이다.

황사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미세 먼지의 흡입으로 인한 천식, 기관지염, 심혈관계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 피부염, 눈병 등 각종 인체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동시에 정보화의 기반인 정밀기기산업에 품질을 저하시켜 경제성장에도 역효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황사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 중국 무역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막지역 산림복원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는 사막화 확산을 막기 위해 서부 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퇴경환림(退耕還林)'이라는 슬로건 하에 녹색벨트를 만들기 위한 대규모의 조림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본 사업은 그동안 산업화 과정으로 인하여 파괴된 산림을 복원시키기 위해 농경지 면적을 줄여서 산림으로 복원시키는 운동이다.

우리 정부에서도 한·중 입입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1996년도 양국간의 협의를 통해 중국의 사막화 방

지사업에 공동 참여하여 나무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시키고 있다. 하지만 사막화의 확산은 여름철 홍수보다도 방대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해로서 지구의 사막화가 더욱 진전되기 이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사막지역 조림사업으로는 외교통상부 주관으로 황사 발원지인 내몽고, 감성성, 신강성 등의 지역에 500백만불을 투자하여 대규모 조림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황사 예방을 위해 범부처적 차원에서 산림청과 환경부가 다양한 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황사에 대하여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산·학·연이 공동 참여하는 국제공동 연구과제로서 환경부의 지원하에 입입연구원, 중국 입입부, 동국대학교 산림자원학과 등이 2002년부터 사막지역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을 개발하는데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금년부터는 중국 사막지역 대상지에 나무심기를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본 연구사업을 통하여 전 세계에서 건조지역 및 염분의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생명공학을 적용하여 신종속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초 시험 결과, 나무를 심을 경우 모래의 이동량이 40%, 풍속이 30%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막지역을 푸르게 하는 일은 드넓은 태평양 바다에

돌 하나 던지는 일 일지는 모르지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시작하듯, 앞으로 정부는 물론 기업, 대학을 포함한 민간차원에서의 사막화 및 황사방지 지구 살리기 나무심기에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사막지역 나무심기 사업을 적극 활성화하여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황사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주민에게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인 불교를 동시에 동북아시아권에 전파시킬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되리라 확신한다.

강호덕
산림자원학과 교수



반전은 이시대의 양심이다

전쟁으로 온 세계가 어수선하다. 저 오만한 미국이 유엔의 결의안도 없이 전 세계민중들의 반전 여론까지 무시하면서 이라크 민중들을 살육하고 있다. 누가 다른 민족과 나라에 간섭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권리를 주었는가. 자신들의 힘만 믿고 이익에만 눈이 멀어 명분도 없이 이라크를 수중에 넣으려고 추악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더러운 전쟁에 우리의 젊은 이들이 파병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국의 때문에 어쩔 수 없기에 파병을 선택했다고 한다. 하지만 베트남전 당시 우리나라에서 32만명이 넘는 전투부대중심의 병력을 파병함으로써 얻은 것이 무엇인가. 8개월간 죽고 다치면서 단지 그 대가로 10억불 정도를 받았을 뿐이다. 일

인당 320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돌아온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라크 다음은 북한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도 강행하고 있는 마당에 핵이 있다고 찍어버린 북한을 미국이 과연 가만히 둘 것인가. 부당한 전쟁에 반대하지 못하면서 이 땅에서의 전쟁은 막겠다고 국악에 도움이 된다고 어쭙 많은 현실론을 퍼는 그들이 답답할 뿐이다.

정부가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해야 한다. 반전은 이 시대 최고의 도덕적 가치이며 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다. 나 한 명부터 실천하고 주위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반전의 파고는 더욱 높아져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승호(사범대 국교4)

동국관 식당 음식맛 개선해야

동국관 식당에 가보면 항상 아침 메뉴는 ~탕, ~국이고 점심 메뉴는 ~볶음밥, ~덮밥 이런 식당이다.

메인 메뉴를 제외하면 변변한 반찬도 없고, 다양하고 특이한 음식 이름만을 생각하면 무언가 있을것 같지만 결국 생각과는 달리 맛은 거의 같다.

예를 들면 김치 볶음밥, 참치볶음밥 등 웬만한 볶음밥은 그게 그거여서 뭐가 다른 건지 알기 힘들다. 그리고 불고기 덮밥은 이게 불고기 덮밥인지 덩어리 양배추 덮밥인지, 고기 국물 덮밥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기가 있긴 한지 찾아보게 된다.

게다가 조금 먹을만 하거나 특이한 메뉴는 (공중 떡볶이, 회덮밥, 돈가스 등)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는 학생들이 적은 저녁에만 나온다. 요즘 들어 그런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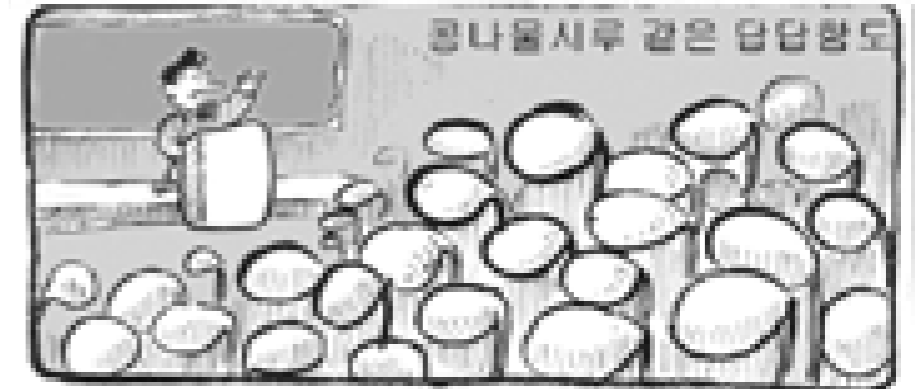
2년 넘게 대학을 다니다 보니 매년 비슷한 식당 메뉴에 지겹지 않을 수 없다. 같이 나오는 반찬도 매일 비슷한 메뉴이고, 제대로 된 나물이나 생선 등이 있었던 적도 없던 학교 식당의 '밥'을 지겨워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 아니다.

메인 메뉴 하나로 제공되는 식단보다 다양한 반찬을 위주로 제공해 준다면 질리지 않고 색다른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동국관 식당은 우리나라 음식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메뉴에 대해 시도가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쉽다.

학생들이 식당에서 만족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동국관 식당은, 메뉴의 다양화와 맛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오예원(경영대 경영2)



능동적 독서의 즐거움

고등학교를 졸업해 대학에 와서 가장 다른 점을 찾으면 자율성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행동하고 공부하고 사소하게는 의견을 건의하는 것까지 고등학교 때처럼 누구의 압력이 가해지거나 시켜서 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처럼 자신의 모든 권리를 위해서는 스스로의 깨어있는 지식과 능동성이 필요하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활력소가 되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의 문화, 흔히 말하는 이 단어의 밑바탕엔 항상 책이 깔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나라는 선진국의 독서량 순위로 볼 때 거의 하위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1인당 독서의 양이 적

은편이다.

이제 고등학생의 시선과 태움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해 행동하고 넓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독서라는 발판이 밑받침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대학내에 학생들이 공간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 새로운 강좌도 만들고 설문 조사를 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시간을 조금만 더 할애하여 독서를 하는 방법을 방안해 보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독서그룹이나 새로운 방식의 독서 강좌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방법인 듯 싶다.

나중희(불교대 불교2)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이라크전 · 등록금 문제 관련기사 시의 적절

지금 동악과 우리 사회는 물론 세계 전반이 각종 사안들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전세계적인 반전운동인 것인데 지난 호 동대신문에서는 반전 평화 수업, 대학생 행동의 날 행사 등의 기사를 다루면서 한국사회와 동악 내에서도 실천운동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조금 더 자세

히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학교측의 등록금 인상을 8% 하향 발표는 학생들과 논의 없이 그리고 근거 없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필자로서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학교측에서는 인상 근거 중 하나로 장학금 확대를 제시하지만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해 수혜율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확대는 아니다. 이것은 비율을 높인 것 처럼 보일 뿐이다.

이에 관해 양측의 입장을 모두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이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동전납부 시위 등을 좀더 자세하게 다루었다면 등록금 인상이 적절하지 않은 것임을 지적하는 데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다.

그리고 학생회 보궐선거의 결과와 문제점 지적에 관한 기사들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한총련 정치수배자들과 가족들의 만남은 코앞이 정해지면서 그들의 인권은 대체 어디에서 보호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수 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결코 처벌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동대신문의 제53회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동악내의 병철한 언론으로서 남길 바란다.



동악광장

축하합니다

△정은경 생일 축하해!! -석
△영건이와 연숙이의 지난 1000일을 축하합니다.

△염정원 200축하해. -RYO
△형욱아 축하한다.

△KUSA공식커플 1호 다정♡반창 2호 근호♡영은 3호 민우♡미옥 축하해요
△3월10일 캠프과 안상우군 생일입니다.

△김공과P군과 H양이 커플이됐습니다.
△영화와 정창주 MBC환경마라톤 하프완주축하!! -마리튼쟁

△혜원아, 생일 축하해 -유미&송우빠가
△내친구 정유경이 C.C가 됐습니다 축하해주세요
△박보배♡김현수 국통과 C.C 축하합니다. 미팅 잘 다녀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지문 없애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9女
△키리스마 췌제자
△쉴! 공부하느라 수고했다
△쉴!월,화,수 공부 시험보느라 수고했어!
△경영대 해오를식 준비하시는 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일일 호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ELF

열심히 하시다

△주희언니~우유 열심히 해봐요!!
THANK YOU~♡
△물리2를 듣는 모든 1학년여러분 열심히 하시다!
-CHARLES

△5/31 TEPS시험
△중간고사 공부 열심히 하시다!!
△등록금 납부거부 천막농성 열심히 하시다.
-단장

△공 중간고사... 열심히 하시다.
△공연? 해진? 연정 이번 중간고사는 All A뿐이다!
-썩썩이
△최보영 화이팅! 주십어요.

그리고...

△동대 실습했는데 도서관 넘 좋아요 -S.M
△4월15일 공대 02학번 김대일 학우가 군대에 갑니다 조심히 갔다와.
△도서관 있는 핸드폰 충전기 다되면 빨리 찾아갑시다!!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4/14)	돈육꿏고추찌개 (1300) 닭갈비김치볶음 (1500) 갈비김단 (1500)	냉이국백반 (1500) 소고기볶음밥 (1500) 두부김치 (1300)	우렁된장찌개 (3000) 닭갈비 (3200)
화(4/15)	양지탕 (1500) 만두탕수 (1300) 쭈꾸미제육볶음 (1500)	햄숙어찌개 (1500) 간자장 (1500) 순대볶음 (1500)	어묵우동 (3000) 이면수국이 (3200)
수(4/16)	비지릭수제비 (1500) 김치볶음밥 (1500) 치킨가스 (1500)	떡만두국 (1500) 순살돈가스 (1500) 오징어숙회비빔밥(1500)	사골우거지탕 (3200) 우징어탕수 (3200)
목(4/17)	햄숙어찌개백반 (1500) 오징어떡볶음 (1500) 불고기비빔밥 (1500)	장터국밥 (1500) 잡채밥 (1500) 치킨샐러드 (1500)	김치불고기술밥 (3200) 도라지국이 (3200)
금(4/18)	닭가장 (1500) 제육쌔볶음 (1500)	순두부찌개 (1300) 골뱅이소면우침 (1500) 해물덮밥 (1500)	썩원자전골 (3200) 볶음밥 (3000)

저자와 독자의 이유있는 '만남'



'악역을 맡은 지의 슬픔' 저자 홍세화



김민수 (사회4)

'사회귀족'에게 던지는 아웃사이드의 쓴소리



'사회귀족의 나라에서 아웃사이드로 산다는 것'이란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 '악역을 맡은 지의 슬픔(이하 악역...)'의 저자, 홍세화(한겨레신문 기획위원) 씨의 눈에 한국사회는 민주공화국이기는 하지만 사회귀족의 나라에 더 가깝다. 그래서 슬프지만 악역을 자처하고 그 성채를 정면 비판하는데 서슴지 않는다. 사회귀족들이 그들의 성채를 공고히 해온 방법과 역사, 그것을 돕는 지식인의 침묵 또는 언론의 지지 등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또한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극우 헤게모니 세력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하며, 진보적 지식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주5일 근무제, 주택정책, 교육비의 국가부담 등 귀 기울여 볼 만한 여러 제도를 제시하기도 한다.

한 올바른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애국조화와 두발·복장 단속 등 일제 군국주의 때부터 이뤄진 국가주의교육이 여전히 잔존해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국가주의와 반군주제에 순응하는 존재로 형성되고 합니다. 공익을 추구하고 자기정체성을 인식하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회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공화국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랑스사회를 이상화하고 환상을 갖게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홍 =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사회제도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들여왔고, 그나마 들여온 것도 제대로 된 내용물보다 '껍데기'만 가져온 실정입니다. 프랑스사회와 자주 비교하는 이유는 프랑스사회가 이상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예를 통해 그 속에 담긴 내용물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제시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프랑스는 프랑스인이 만들어가는 사회이고 한국은 한국사람의 언어와 문화적 정서로 만들어 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환상을 가질 필요는 물론 없지요.

김 = 프랑스의 경우, 기부문화가 활성화돼 시민운동이 활발하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운동에 뛰어들면 생활의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제 주위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시민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홍 = 우리나라에서는 생존에 대한 불안 때문에 시민운동을 직업으로 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아실현을 하는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생존은 자아실현을 위한 조건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운동에 관심을 갖고 싶다면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리=최승민 기자 qwertwq@dongguk.edu

'나는 바리의 택시운전사'라는 책에서부터 최근 '악역을 맡은 지의 슬픔'까지 홍세화(한겨레신문 기획위원) 씨의 글이라면 모두 섭렵했다는 김민수 군과 함께 지난 11일 한겨레신문사를 찾았다.

지식인의 역할과 언론개혁 등에 대해 논하는 그들의 대화를 들여다보자.

'점잖은' 지식인을 꼬집다

김민수(이하 김) = 책 제목이 '악역을 맡은 지의 슬픔'인데 선생님은 왜 '악역을 맡은 지'를 자처하시는지요.



홍세화(이하 홍) = 요즘 지식인들은 좋은 역할만 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다수의 지식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악역'을 맡은 것은 너무나 '점잖은' 지식인들의 모습을 꼬집는 일종의 반어법이라 할 수 있지요.

김 = 지식인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시는데요. 그렇다면 지식인의 바람직한 행동과 의식을 어떻게 규정되고 있으신지요.

홍 = 지식인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와 자신과의 관계, 그 바탕에서 신념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식인의 역할이어야 할 비판과 참여의 모습이 퇴색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즉, 현실에 있기보다 현실 위에서 관조하며 양비론을 펼치는 행동과 지식인들끼리 이런 행동을 서로 감싸주는 풍토는 그런 퇴색된 모습을 잘 드러내 줍니다.

김 = 노무현 정부가 수립된 후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언론개혁과 '공화주의'의 실현, 진보진영의 도약 등을 위해 한국사회에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

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몇 족벌언론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고요.

홍 = 조선일보는 친일행위와 유신·군사정권을 찬양하는 등의 반민족·반민주행위를 수없이 저질러 왔지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신문을 수단 삼아 자본과 권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언론개혁대상으로 조선일보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조선일보가 많은 문제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식인들은 이를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사회구성원의 이론적·실천적 지표를 제시해야 할 지식인의 역할로 볼 때 권력과 자본에 휩쓸리고 있는 몇몇 지식인은 그들의 역할을 방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공화주의' 없는 공화국

김 = 선생님이 '악역...'에서 언급하셨듯이 우리나라는 공화국임에도 '공화주의'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정한 공화국을 위한 공공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이 유연해지고 민영화 바람이 거세게 부는 등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공공성 확보는 더욱 축소되었습니다. 공화국으로 올바르게 나아가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홍 = 대한민국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화국에 대한 토론이 얼마나 이뤄졌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민주화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대항적 실체가 있어서 토론과 논쟁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공화국에 대해서는 토론이나 논쟁이 거의 벌어지지 않죠. 공화국으로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

홍 = 우선 우리사회에서 진보운동의 역사는 매우 짧기 때문에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지 사회주의를 형성하는 보수세력과 이념적으로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진보'인 것처럼 포용하려는 의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진보는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보진영은 극복해야 하는 대상과 용인할 수 있는 대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보진영은 독재사회를 겪는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수구세력의 견해를 무조건 부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향이 지금까지 이어져 견해가 달라도 서로 인정하려는 모습이 부족합니다. 이런 배타적인 의식 때문에 진정한 보수세력과 연합하지 못했고 심지어 진보세력들간에도 의견차이를 드러내며 분열했습니다. 진보진영은 의견이 다른 세력을 극복대상으로 여긴다는 생각을 바꾸고 서로 용인하면서 견제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김 = 선생님도 프랑스 사회를 '거울' 삼아 그들의 공화국 또는 평등적인 모습을 통해 한국사회의 변화를 제기하셨는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프랑스사회에도 모순이 존재하는데 좋은 모습만 부각시켜 프



2003학년도 파견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선발계획
1. 파견기간: 2003. 9. ~ 2004. 8. (1년)
2. 해당대학별 선발인원 및 지원자격
3. 수확조건
4. 학점인정
5. 전형방식
6. 신청서류
7. 전형일정

취미와 취업을 위한 단기강좌
공강시간을 멋되이 보내는 당신, 여기로 오라~
1. 기간 및 강좌: 5월 6일 ~ 30일 (주1회 2시간씩 총 4회)
2. 접수: 4월 21일 ~ 25일, 여학생실(계산관 1층, ☎ 2260-3056)
3. 대상: 동국인 남녀 누구나 * 선착순 마감, 정원 이하는 폐강
4. 수강료: 10,000원(100% 출석시 환불)
여학생실

제5회 연등 & 축원문(사연) 대공모
아름다운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창의적인 연등을 만들고 가족이나 친구 혹은 연인에게 띄우고 싶은 축원문(사연)을 써서 마음을 전하는 기회
연등부문: 의미를 담은 아름답고 독창적인 등
축원문부문: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원문(A4 1~2장)
응모기간: 2003년 4월 28일(월) ~ 5월 1일(목), 여학생실(계산관 1층)
발표 및 시상: 2003년 5월 6일(화) 12:30, 계산관 앞

학술단신
조세 개혁·재분배 정책 포럼
'조세 개혁과 재분배 정책'이라는 주제의 정책 포럼이 오는 18일(금)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서울시청 옆)에서 열린다.
참여자: 김기현 청와대 민부격차와 차별시정 기획단 △오건호 민주노총 정책부장 △유태현 참여사회연구소 △하승수 참여연대 조세개혁팀 실명위원 △내경 민주계연가회의 회장 △현진권 한국조세연구원 등 6명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시국토론회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회의 시국토론회'가 오는 17일(목) 오후 2시 백범 김구선생기념관 제2교정에서 열린다.
민중노동당과 통일연대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시국토론회에는 김남식 통일뉴스 고문이 '남북제정당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발제한다.
또한 노총선 4월 혁명회 공동대표 최규영 민주노동당 자문위원장, 주종환 민화련 이사장이 참석해 △6.15공동선언과 남북연석회의의 △연석회의에서 정당의 역할 △반전평화와 민족공조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대책마련 토론회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성과 대책마련'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오는 16일(수)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열린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장명숙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002년도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성 및 대책'에 대해 발제하며, 손명숙 변호사 등 3명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주 교수칼럼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쉽니다.

문화인이 말하는 나의 하루

“한의 정서를 판소리에 담아”



박인혜 중앙대 국악대학 음악극과 판소리전공

오늘도 학교로 가는 스쿨버스 안에서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CD에서 들리는 심청가의 애절한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준다.

#1. 연습 - 춘향가 오전수업이 없는 날, 학교 연습실로 향했다. 좁은 직사각형 모양의 연습실에서 북 장단을 쳐주는 친구와 마주앉아 연습을 시작했다. 하루 연습을 거르면 자신이 알고 이들을 거르면 동료가 알고 삼일을 거르면 관객이 안다는 말이 있다.

오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춘향가 소리를 부른다. 6시간이 걸리는 춘향가 1/3을 부르는데 꼭 2시간이 걸렸다. 나는 항상 연습을 하고 나면 나의 목 성대에 무언가 보호막 같은 베일이 형성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나는 그 느낌을 즐긴다.

#2. 전공레슨 - 흥보가 오후가 되자 전공시간이 되어 레슨이 시작되었다. 선생님과 1:1로 앉아 있노라면 언제나 나는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낀다. 큰나무에 서서 그 나무를 바라보는 어린이의 마음이랄까, 오늘 배울 소리는 판소리 흥보가 중 흥보가 매듭을 풀러 가는 대목이다.

판소리를 배우는 우리에겐 가사는 있지만 악보는 없다. 우리 소리는 오선지에는 나타낼 수 없는 수많은 미세한 음과 느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악보는 나타낼 수 없는 우리 소리의 한을 우린 선생님의 목소리로 부터 느끼고 배운다. 판소리를 시작한지 올해로 9년째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큰 스승의 큰 소리를 진심으로 이해 할 수 있을까.

#3. 나의 직 - 감기 일교차가 큰 날씨가 반복되면서 감기에 시달리고 있다. 목소리가 약기던 나에게, 감기는 너무 큰 적이다. 목을 감고 있는 손수건이 내 목을 보호하는 첫 번째 수단이다. 감기의 영향으로 성량이 잘 나오지 않고 목소리가 가라앉는다. 집으로 돌아와 마시는 오미자차 한잔이 나의 목을 보호하는 두 번째 수단이다. 오미자차는 목이 쉬었거나 감기가 걸렸을 때 목의 열을 가라앉혀 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공연이나 대회를 앞두고는 나의 몸과 목을 과도하게 보호한다. 컨디션 조절을 잘 하는 것이 훌륭한 소리꾼이 되는 첫번째 조건일것이다.

우리나라의 음악문화는 아직도 대중가요와 외국음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믿고 있다.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준 우리 음악 판소리가 언젠가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의 귀를, 나아가 세계 모든 사람의 귀를 한국 음악의 신비함으로 채워줄 것이라고...

문화계가 외치는 반전

‘칼’을 막기 위해 우리는 ‘펜’을 든다

문화예술계 반전·평화 시위 및 행사 활발 ... 시민 참여로 본래 의미 바래지 않아야



“지금 세계는 허구인 것 같습니다. 선거결과도 허구입니다. 허구인 대통령이 선출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대통령은 허구적인 이유 때문에 전쟁에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 반대합니다. 부시 대통령 부끄러운 줄 아시오!” 이것은 지난달 23일 열린 제7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볼링 포 콜롬비아’로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한 마이클 무어 감독이 한 말이다. 반전 여론으로 개최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따라 축소 진행된 아카데미 시상식, 미국을 대변하기도 하는 그 곳에서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담담한’ 발언은 큰 화제가 되었다.

이처럼 많은 반대의 목소리에도 계속되는 이라크전쟁에 대해 펜과 붓, 필름 등을 든 문화예술인들도 빠지지 않고 “전쟁 반대”를 외쳤다.

시인 고은, 신경림, 소설가 박완서, 조정래, 황석영 등 문인 203명은 지난달 25일 종묘공원에 모여 이라크전쟁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진 뒤 광화문 미대사관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또한 문화계학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 강내희 집행위원장, 영화배우 문소리 등 17개 문화예술계 단체 소속 문화예술인 30여명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라크 전쟁을 지지한 정부를 비판했으며 대중음악인들도 반전 결의대회 및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와 함께 반전 메시지를 전하는 문화행사도 차례롭게 진행됐다. MC 스나이퍼, 트랙스픽션 등 록 합창 가수들은 반전 콘서트 ‘No War’를 지난 4일 성황리에 끝마쳤다.

그리고 명동성당 앞에서는 지난 8일 반전·평화 집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반전 문화행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시인 안도현, 최승호 등이 참여한 ‘평화 시 낭송회’와 시민들이 직접 반전 메시지를 적은 일사귀를 붙이는 ‘평화나무 만들기’ 행사는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학내에서도 지난 9·10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총학생회의 주최로 ‘피아니스트’ 지옥의 묵시록 등 전쟁영화를 상영하는 ‘반전영화제’가 진행됐다.

한편, 이라크 전쟁이 사실상 종전단계로 접어들면서 반전열기는 이라크 난민 지원과 북핵문제 해결 등으로 범위를 넓힌 ‘반전·평화’로 이어지

고 있다. 문화연대는 지난 11일 명동성당 전야제를 시작으로 반전평화 릴레이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 평화 거리극과 반전평화 콘서트를 인사동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가수 한대수는 반전·평화 콘서트 ‘눈물’을 오는 25일~26일 동덕여대예술센터에서 갖는다. “노래로 상처 입은 이들을 달래고 치유하고 싶다”는 이유로 열리게 된 이번 콘서트에서는 히트곡과 함께 ‘별망의 아침’ ‘호치민’ 등 반전 메시지를 담은 노래들을 들을 수 있고 시 낭송 등을 통해 평화를 기원하는 간단한 의식도 볼 수 있다.

이처럼 반전과 평화를 외치는 문화예술계의 움직임은 전쟁이 계속될수록 여러 가지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자칫 딱딱하게 여길 수 있는 반전운동을 문화행사로 풀어내 더 많은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함께 반전을 외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양적으로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제 빛을 발휘하지 못한 행사들도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이러한 문화행사를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하는 주제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듯 보인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사에는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져 ‘그들만의 쇼’가 아닌 또 다른 반전집회로서 의미가 바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하나 기자 sallyone@dongguk.edu

네터즌 반전 열기

명분 없는 전쟁은 이제 그만!

Re : 사이버 광화문으로 촛불시위 하러 가요.

얼마 전 한 사이트가 특종 보도한 13세 미국 소녀의 반전 호소문은 순식간에 3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최고 키워드가 ‘반전’인 요즘의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오프라인의 반전 집회 및 문화행사는 온라인 상에서 네티즌들의 반전운동으로 더욱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활발한 것은 홈페이지나 커뮤니티를 통한 활동이다. ‘전쟁반대’ ‘반전평화의 네티즌 모임’ 등 수백여개의 홈페이지가 문을 열었고 포털 사이트 ‘다음’에도 30개가 넘는 반전 커뮤니티가 개설됐다.

서울대·한양대 등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대학생 반전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반전 이유 릴레이’라는 커뮤니티는 네티즌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이유를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가며 반전 여론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반전 커뮤니티에서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오프라인상의 반전 캠페인 및 집회참여 등과 연계해 활동을 하기도 한다.

또한 아바타 사이트 ‘메즈메이트’에서 제공하는 3D 사이버 광화문에서는 많은 네티즌들이 사이버 평화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회적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패러디 영화 포스터를 비롯해 미국에 대한 불만을 그린 카툰, 플래시 애니메이션 역시 네티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을 풍자하는 데서 비롯된 신조어들도 등장하고 있다. ‘남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모양’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약자를 괴롭히는 행동’을 뜻하는 표현으로 ‘부시스

럽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 사이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이모티콘(☺)을 달기 운동도 널리 퍼지고 있는 추세다. 한편 반고 홈페이지 여론광장 ‘나의 주장’ 역시 연일 반전에 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네티즌들에게 반전은 하나의 문화 키워드로 자리잡았다. 물론 이것은 광화문이나 대학로가 아닌 PC 앞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오프라인상의 반전 운동과 그 의도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은 특별한 일부가 아닌 광범한 대다수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문화부 culture@dongguk.edu



문화단신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오는 23일 유네스코 제정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이색적인 행사들이 열린다.

지난 95년 제정된 이후 현재 전 세계 30여개국이 이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교보문고, 시디문고 등 전국 10개 서점이 참여하는 ‘책과 장미의 축제’는 연인, 친구, 가족 단위 고객에게 책과 장미꽃 한 송이를 선물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양서를 기증하는 ‘사랑의 책 보내기’ 행사도 개최된다.

제6회 아시아 만화전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는 오는 25일까지 ‘제6회 아시아 만화전’을 서울애니메이션센터에서 진행한다.

‘내 이웃나라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아시아 10개국의 만화가 10명이 이웃나라를 떠올리며 평소 이미지, 시사적인 이슈를 토대로 한 풍자적인 카툰을 전시한다.

특히 한국의 주제로 한 일본의 구니히코 히사의 작품이 눈에 띈다. 이 작품은 컴퓨터집이 내장된 전통적인 원앙새 목각인형 형태로 한국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도의 엄청난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2차선 도로를 그린 중국 만화가 선위젠에게의 ‘신성한 소에 대한 특별대우’ 등 총 68점의 작품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2122 - 2820

공연계 ‘사스’ 공포

국내 공연계 역시 전세계를 공포로 휩쓸고 있는 ‘사스’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에서 개막한 ‘2003 세계여성음악제’는 일부 해외 연주자들이 ‘사스’ 감염을 우려해 행사 직전 불참을 통보해 공연 일정에 문제가 생겼다.

한편 계획중이었던 중국 공연들 또한 대거 취소되고 있다. 유라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중국을 순회하며 진행하려던 중국 순회연주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뿐만 아니라 다음달 10일 한국오페라단의 주최로 예정돼 있던 한·중 성악가 대중가요가 참여하는 대규모 ‘갈라 콘서트’도 6월로 연기됐다.

제22회 스승의 날 기념

은사님께 감사의 편지와 선물을.....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옛 은사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 1. 행사명 : 은사에게 감사의 편지와 선물 보내기 (초·중·고등학교에 한함)
2. 행사내용 : 초·중·고등학교 은사님께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학교에서 마련한 소정의 선물을 동봉하여 소포로 발송해드립니다.
3. 접수기간 : 2003. 4. 23(수)~5. 12(월) 09:00-17:00까지
4. 접수처 : 본관 학생복지실 ☎2260-3048
5. 편지·선물 발송일 : 2003. 5. 13(화)

* 유의사항 : 수신자 주소는 반드시 은사님의 재직학교 주소이어야 함.

2003. 4.

학 생 처

2003년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공고

- 1. 교육대상 가. 기본훈련 8시간 : 전역2~7년차 예비군(96~2001년 전역자) 나. 소집점검 4시간 : 전역 1년차 예비군(2002년도 전역자)
2. 교육대상 제외자 가. 2003년도 전역자 나. '95.12.31일 이전 전역자 (전역 8년차 이상 예비군)
3. 교육일정 / 장소 가. 소집점검4시간 대상자(전역1년차) / 노고산 훈련장(219연대)
나. 기본훈련 8시간 대상자(전역2~7년차) / 노고산 훈련장(219연대)
4. 복 장 : 예비군복(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고무편, 허리띠)
5. 휴대품 : 신분증지갑(주민등록증, 학생증, 면허증) - 분실자는 예비군 연대에서 편성카드 복사
6. 유의사항 : 가. 구과별 전철역에서 북한산방향으로 300M지점에 셔틀버스 대기
나. 개인자가용 운행가능(주차장원비)하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것
다. 8시(오후교육자3시)이후 훈련자 도착자 입소 불가(위생소 통제)
라. 예비군복중 1가지만 미착용해도 입소불가
마. 해당일자에 교육을 참석 못할시 예비군연대본부에 사전 신고하여 일정조정
* 예비군연대본부 연락처 ☎2260-3073, 4

동국대학교 예비군 연대

언어연구교육원 봄학기 특강

EVENT> 선착순 20명 예쁜 보조 가방 증정!!

Table with columns for course name, instructor, and dates. Courses include 'Me & My life 1', 'Me & My life 2', 'Writing & Speaking', 'Interview English', and 'CBT TOEFL'. Instructors listed are David Green, Ivon Katz, Mary-Ann Kerry, and Modesto Tumacder.

- 수강생 특혜 1. 특강 수강시 무료 웹토의 수강기회 2. 모의 토익 테스트 무료 응시 혜택 3. 2과목 동시 수강 시 1만원 할인
언어연구교육원 특징 1. 학원과 차별화 된 우수한 강사진 2. 전용강의실의 쾌적한 수업분위기 3.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4. 타 사설학원에 비해 저렴한 수업료 (교재 무료 제공)

동국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The Center for Language Research and Instruction

매체비평

음반 편

박지윤 6집 'Woo~ Twenty one'

“일방적 심의 연연치 말고
의연한 자기 표현으로”



미성년자 대상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박지윤의 6집앨범 'Woo~ Twenty one'.

'사정심'라는 이름의, 심의 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검열이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한 지 벌써 7년이 되어간다. 영상물은 등급 사정심의료. 그리고 음반에 관

한 경우 사후심이라는 단서조항이 깨진 후처럼 붙어 있던 하지만 국내 음반은 자유롭게 자신의 표현을 피력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물론 외국 음반의 경우 가사는 사전 심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말이다. 사후 심의라고 해 봐야 조PD의 1집부터 최근 파문이 일고 있는 박지윤의 '할 줄 알아?' 같은 미성년자 대상 판매금지 스티커 부착 처분이다. 이 같은 보안 장치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음악산업 선진국에서도 정착한 것으로, 좀 과격한 아티스트들은 자기 앨범에 스티커가 붙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며 오히려 마케팅의 일환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래서 조PD는 세익 웃으며 받아들였던 것인데, 이번 박지윤 사태의 경우 그의 프로듀서의 반응이 아무래도

조금 '오버'한 것으로 보인다. 프로듀서의 반응에 대해 매스컴이 응답한다는 것 자체가 그의 매스컴 플레이에 말려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프로듀서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 사이에 벌어지는 해묵은 논쟁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불'한 칼럼이 나올 정도로 더 이상 문제적이지 않다. "프로듀서와 기윤실이 한판 붙어서 가장 분명해지는 효과는 '프로듀서는 기윤실의 존재를 환기시키고, 기윤실은 프로듀서를 투사해 키운다'는 사실이다. 이쯤이면 둘이 한판이 싫은 작각이 들 정도다 - 일간스포츠" 논의가 되는 지점은 아무래도 공중파 방송의 자체 심의이다. 하지만 이 또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왜냐하면 이 또한 각 방송사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심의 기관에 의한 강제적인 검열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공중파 방송의 심의는 '접근의 무차별성'이라는 공중파 방송의 특성 때문에, 사회의 가장 보수적인 금기 기준을 지니고 심의에 입한다. 요즘은 심야 시간대의 경우 연령 제한 표기로 표현의 폭을 확장하곤 있지만 그것도 고작 영화나 드라마에 해당될 뿐이다. 그동안 셀 수도 없는 앨범 혹은 노래가 방송 금지되었다. 그러나 전곡이 방송 금지되었다고 해서 '황신해밴드'나 '어버 프로젝트'가 인상쓰지 않는다.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가진 방송의 자율적인 심의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우리는 일종의 옥상옥 격인 방송국 심의실의 일방적인 판단보다는, 직접적인 프로그램 담당자인 현장 PD의 양

강현
대중음악평론가

여성영화의 장 '제5회 서울여성영화제' 개막

여성영화의 장 '제5회 서울여성영화제' 개막
가부장적 틀 버리고 여성성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

4월에는 꽃잔치가 많다. 벚꽃축제 같은 실제 꽃 잔치 외에도 '여성'을 위한 굵직한 행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세계여성영화제에 이어 지난 11일 개막한 '제5회 서울여성영화제(위원장=이혜경·WFFIS)'는 단연 눈에 띈다. 세계 여성 감독들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영화들을 선보이는 자리인 서울여성영화제는 지난 97년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라는 캐치프라이즈 아래 격년제 행사로 시작해 지난해부터 연례행사로 자리잡았다. 다른 영화제와는 달리 예산 확보부터 관객의 선택을 받기까지의 전 과정을 '발로 뛰어' 하기에 초반에는 예산 지원 부족과 홍보 미비 등으로 인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 여성 영화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극장에서 보기 힘든 파격적인 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을 관객들이 점차 인식하면서 서울여성영화제는 아시아 대표 여성영화제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규모의 확대

올해 행사는 오는 18일까지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하이퍼텍 나다,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 공연장에서 열린다. 상영작은 지난해 80편에 비해 크게 증가한 120여 편이며 7개 부문으로 나누어 상영한다.

먼저 '새로운 물질' 부문은 최근 2~3년 동안 여성감독이 제작한 우수 작품 37편을 통해 세계 여성영화제의 전방적인 흐름을 소개한다. 이 부문에서는 마린고리스, 아녜스 바르다 등 세계 거장 감독들의 카메라 앵글에 비친 베를린의 아나키스트, 한국의 비바람 주부 등 현실과 욕망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성들을 만날 수 있다. 더불어 올해부터 새로운 기법과 주제가 돋보이는 여성 애니메이션을 만날 수 있는 '여성 애니메이션의 새물질'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실험영화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덱포커스'는 반가부장적인 영화와 여성성을 탐구하고자 마련된 부문이다. 무엇보다 디지털 시대의 감각적인 기법과 여성만의 섬세한 표현방식이 이루는 조화가 불만하다. 이와 관련해 여성실험영화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여성 실험영화의 경향' 포럼이 오는 16일에 진행된다.

이 외에도 필리핀 여성영화를 소개하는 '아시아특별전' '감독특별전' 등이 있으며 '한국영화회고전'에서는 배우 도금봉이 출연한 '뜨소이' '월하의 공동묘지'의 4편의 영화를 통해 금기에 도전하는 그녀의 작품세계를 조명해본다.

남성도 포용하라

서울여성영화제는 여성을 위한 영화제

이기는 하지만 여성만을 위한 영화제는 아니다. 여성 관객들에게 공감을 준다면 남성 관객들에게는 여성을 이해하는 계기를 던져주는 것이 이 영화제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남성 관객의 수는 현저하게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남성 감독의 참여가 불가능한 것에서 오는 '남성에게는 닫힌' 영화제라는 인식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여성 감독 작품만을 초청·상영할 것이 아니라 남성 감독의 여성 영화까지 넓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화계에서의 의의

서울여성영화제가 우리 영화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매우 크다. 아직까진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 제작되는 영화의 대부분이 가부장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만의 축제로 보일 수 있는 이 영화제는 그러한 세태를 소리 없이 원망하는 것에서 나아가 '필름'으로 당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관객의 힘으로 가는 영화제"라는 이혜경 위원장의 말처럼 서울여성영화제는 관객들의 참여가 원동력인 행사이다. 여성의 주체성을 고민하는 여성 혹은 여성이 말하는 여성성을 궁극해하는 남성이며, 여성의 웃음과 도발 그리고 슬픔이 담긴 필름들에서 그 답을 구해보는 것은 어떨까.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사무국장 김태은 씨를 만나

“대중성 갖춘 실험영화로
한 상 가득 차렸습니다”



많은 리플렛 자료만으로 제5회 서울여성영화제를 파악하기엔 무언가 부족하다. 제5회 서울여성영화제를 위해 1년여 간 준비해온 김태은 사무국장에게 이번 영화제의 특징과 영화제를 두 배로 즐기는 방법 등을 들어 보았다.

- 제5회 서울여성영화제가 갖는 특징은 = '대중성'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영화를 상영작으로 골랐고 상영관도 동덕여대 상영관까지 모두 3개관으로 늘려 더욱 많은 관객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영화제는 관객들에게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때문에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오픈스테이지, 무료 페이스페인팅 등 이벤트를 지난해보다 늘렸다. 아이가 있는 주부들을 위해 놀이방도 준비했다.
- 그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아는데, = 부산·부천영화제와 달리 관람 시 협찬을 받지 못해 재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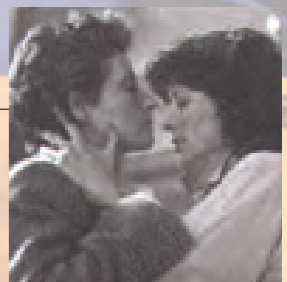
달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2000년 즈음 영화제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안정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 2002년부터 1년에 한 번씩 영화제를 열면서 작품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좋은 작품을 많이 발굴할 수 있었다. 그만큼 여성영화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 관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코너가 있다면 = 페girl·女담을 추천하고 싶다. 관객들과 감독 및 영화인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자리로 감독특별전과 한국영화 회고전, 한국장편영화상영 시간이 끝난 후 진행될 예정이다. 섭외하기 힘든 게스트들이 자리하는 만큼 특별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 서울여성영화제를 더욱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은, = 서울여성영화제는 여성만을 위한 영화제가 아니다. 남자친구나 남동생, 심지어 아버지까지 함께 온다면 색다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여성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섬세하고 강한 여성적 매력은 여성들만이 아닌, 양성성이 함께 할 때 더욱 빛나기 때문이다. 송윤경 기자
itsj@dongguk.edu

See the World through Women's Eye culture@dongguk.edu

전문가가 주목한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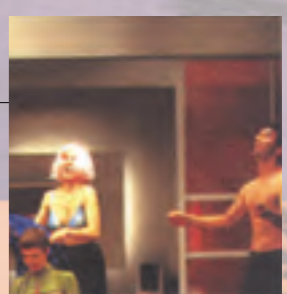
유지나(영화평론가) 교수
레아 폴 감독 '안스 트리스테'



“그녀만의 섬세한 기법으로
여성의 내면을
예술적으로 승화”

'상실의 시대'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여성 감독 레아 폴. 이번 영화제에서 그녀의 작품세계를 회고하는 '감독특별전'이 마련됐다. 그 중에서도 자아를 찾아가는 젊은 여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안스 트리스테'가 눈에 띈다. 한 영화평론가가 아버지를 여윈 후 자신의 연인을 버리고 몬트리올로 떠나 아동심리학자 여성을 만난다. 연대감을 느끼며 깊어지던 그들의 우정은 점차 묘한 관계로 변한다. 이민과 이산, 여성의 내적 망명과 방랑, 모호한 성적 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주제로 하고 있는 레아 폴의 작품세계를 돌아보고, 여성영화의 특징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자전적 글쓰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오동진(YTN·필름2.0) 영화기자
도리스 뒤리 감독 '벌거숭이 게임'



“‘파니핑크’에서 느꼈던
감독의 힘있고 발랄한
에너지 만끽”

현대 독일 영화의 거장 도리스 뒤리 감독의 새 영화. 경제적인 수준과 애정도가 다른 세 커플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주적으로 부자가 된 딸과 그의 부인 샤를로트는 벌거벗은 들어간 상태인 펠릭스와 에멜리아, 곧 약혼을 하는 보리스와 아네트를 파티에 초대한다. 그런데 파티 분위기가 무르익자 즉흥적인 내기가 벌어진다. 그 내기는 펠릭스와 에멜리아를 제외한 두 커플의 눈을 가진 채 벌거벗은 자신의 파트너를 찾는 게임이다. 유쾌한 웃음을 줄 뿐 아니라 몸매에 대한 기억을 통해 사랑과 믿음, 성공과 행복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도록 한다.

서울여성영화제 프로그램팀
박찬욱 감독 '질투는 나의 힘'



“올해 최고 여성영화의 발견,
새로운 여성 어법의 향연”

지난해 제작기간 내내 우리 영화계의 주목을 받은 작품이다. '여자 흉상'라 불리는 감독의 농익은 솜씨는 '질투는 나의 힘'을 여성 영화에 목말라 있는 우리나라 영화계의 기대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감독은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대학원생 원상은 여자친구가 한 잡지사 편집자인 유부남 윤식과 사랑에 빠지면서 자신을 버려자 그 잡지사의 객원기자로 취직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원상은 윤식에 질투와 동시에 동경심을 갖게된다. 그러던 중 잡지사에 새 사진기자가 들어오고 원상은 그녀를 사랑하게 되지만 그녀 역시 윤식에게 빼앗기는 상황에 놓인다. 배우들의 무르익은 연기가 영화를 보는 재미를 더해준다. 문화부
culture@dongguk.edu

메아리

동상(?)이몽(?)

▲1960년 4월 19일, 파고다공원에 세워져 있던 이승만 동상이 쓰러졌다. 역사적인 날이었다. 사람들은 쓰러진 동상을 깨뜨렸고, 심지어 줄을 달아 끌고 다니기까지 했다. 이는 반민주적·부적절 행태와 민간인 학살 등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되었던 '공포정치'의 막이 내렸음을 의미했다. 그 날 길거리로 나온 수많은 민중들은 결국 이승만을 하야시키고 민주정부를 구

성하는 '승리'의 역사를 기록했다. ▲2003년 4월 9일, 바그다드 알 파두스 광장에 세워져 있던 사담 후세인의 동상이 쓰러졌다. 부시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국이 바그다드를 함락했음을 뜻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미국 언론매체들은 이라크 사람들이 미군들과 함께 쓰러진 후세인의 동상을 짓밟고, 심지어 끌고 다니기까지 했다고 보도했다. 독

재정권인 후세인 체제의 '공포정치'가 붕괴됐음을 알리는 결정적 신호탄이자, 미국에 의한 이라크 해방을 의미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랍권 사람들은 미국의 바그다드 함락 장면을 TV로 보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전쟁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인들이 이라크 해방이라고 생각했던 후세인 동상 철거 장면은 아랍권 사람들에게는 미국의 위선과 침략

으로 비춰졌을 뿐이다. 미군의 바그다드 입성은 환영하면서, 약탈을 일삼고 후세인의 벽화와 초상화를 파괴하는 이라크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미국 방송사의 보도 행태는 어디까지나 이미지 조작에 불과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라크 사람들의 행동은 단지 독재자 후세인을 더 증오했기 때문에 표출된 것일 뿐 미국의 침략적 전쟁을 인정하거나, 미국에 의해 진정한 해방을 이뤘다고 여기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시작부터 이라크 침공의 진짜 목적이 '반데'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종결된 전쟁일지라도 명분 없는 전쟁이 초래한 수많은 인명 피해와 파괴의 참상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국이 진정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기는 아무래도 불가능해 보일 수 밖에 없다. 한보라 편집장
hviolet@dongguk.edu